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425호

Thursday, November 13 2025 A

“쥐도 못 먹을 판” GPU 위한 전력확보 비상

인공지능(AI)을 연구하는 대학들은 전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AI 연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는 다른 연구소의 서버 가동을 중지하는 등의 사용 제한까지 할 정도다. 수도권 한 사립대에서 AI를 연구하는 한 교수는 “전기 먹는 하마인 AI 연구가 본격화되며 전력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엔비디아가 한국에 주기로 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학교에 주더라도 전력 문제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AI 전력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을 공급받으며 AI의 두뇌 확보에 숨통에 트이면서다. 문제는 두뇌를 돌릴 에너지원인 전기이다. 이번에 한국이 받은 GPU 26만 장(GB200 기준)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경우, 냉각 설비 등을 포함해 약 600 메가와트(MW)의 전력이 소모된다. 신행 대형원전인 APR1400급 원전 1기 발전용량(1400MW)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재심의한다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은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 모습. 송봉근 기자

AI 전력전쟁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국이 원전 확보에 나서는 와중에 나홀로 감(減) 원전 역주행을 하고 있는 데다 전력을 실어나를 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다.

AI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은 가동을 중단했던 기존 원전을 재가동하고,

천연가스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늘리며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고, 탈원전 정책을 펴던 독일도 원전 건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저탄소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AI 개발용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솔루션스트레

트지파트너스의 함완균 대표는 “미국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ESS는 보조 발전원으로, 주발전원은 천연가스 발전을 사용하는 등 에너지원을 적절히 섞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등 특정 에너지원만 집중하지 않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포집 등 다양한 기술에 세력 공세를 쥐 기술

에 편향없이 전력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에만 무게추가 쏠려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가스 발전은 발전소 건설에 2~3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데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이 가능하고 출력조절도 자유롭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전력 수요는 가스 발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주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송전망 확충 문제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54건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중 55%(30건)가 지연되고 있거나 지연 예상 사업으로 분류됐다. 동해안 지역의 원전과 화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은 당초 2019년 준공 목표였지만 2026년 말 이후에야 완공될 전망이다. 안효성 기자

“H-1B 비자 남용에 대한 조사 착수”

차베스-데레머 장관 밝혀

전문직 취업 비자 편법 활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로리 차베스-데레머 연방 노동부 장관은 한 주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H-1B 비자 남용과 관련 175건의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차베스-데레머 장관은 이날 ‘뉴스라인’과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어월’은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노동자

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위한 프로젝트에 직접 서명했다고 밝힌 차베스-데레머 장관은 “이민법 준수 조사 명령에 노동부장관이 서명한 것은 역사상 최초”라고 강조하면서 “고용주들이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인 근로자에게 먼저 공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해당 기업이나 사업체에게

향후 H-1B 비자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베스-데레머 장관은 ‘프로젝트 파이어월’이 노동부가 미국 내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훼손하는 기업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모두에게 경고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 조치는 기업들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한 기자

필라델피아 조폐국, 마지막 ‘페니’ 소진

조폐국은 12일 페니(Penny, 1센트 동전·사진) 생산을 중단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때 간식이나 살 수 있었던 1센트 동전이 점점 더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페니 동전은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주조됐다. 이 곳은 의회가 주화법을 통과시킨 지 1년 후인 1973년부터 가장 작은 액면가 동전이 주조되어 온 곳이다. 조폐국 관계자들은 남은 페니 동전은 경매에 붙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페니는 여전히 법정 통화로 남아 있지만, 새로운 페니는 더 이

상 발행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페니의 가격이 1페니당 4센트로 치솟고 1센트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 시대에 뒤떨어지자 페니의 폐지를 지난 2월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2센트보다 더 비싼 페니를 주조해 왔다”라며, 이걸 정말 낭비라고 강조했다. 1793년에는 페니 1개로 비스킷, 양초, 사탕을 살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수 많은 페니가 유리병에 담겨 사실상 버려지거나 수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한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스마트보험이 무료 세미나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세미나



10/1, 10/8, 10/15, 10/22,
10/29, 11/5, 11/12, 11/19

오바마케어 세미나



12/3, 12/10, 12/17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가
직접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지금 바로
스마트보험 무료 세미나 신청하기



SCAN ME



스마트보험 사무실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7535 Little River TPKE #204
Annandale, VA 22003



세미나 내용

메디케어/오바마케어 기본 내용 및
나에게 맞는 플랜 선택하기



참석 방법

전화/문자/이메일/QR 코드 등록을 통해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전화예약 703-639-0882



문자예약 703-745-5002



이메일 예약 agentsupport@solomonus.com



노만석 사의, 대검부장단 퇴진 종용에 결심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포기 다툼 만에 표명
“하고 싶은 말은 퇴임식 때 하겠다”
용산 즉시 “면직제정 오면 수리할것”
총장·차장·중앙지검장 리더십 공백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오후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논란 다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격으로 133일간 권한대행을 맡았던 노대행까지 물러나게 되면서 검찰은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총장,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리더십 공백이 불거지며 검찰 내부의 혼란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노대행은 이날 오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후 5시쯤 (사표를) 냈다. 조직을 생각해야지 나만 생각할 수 없어 냈다”고 말했다. ‘억울하지도 않냐’는 질문엔 “나가는 마당에 (그런 말을) 하면 뭐하냐”며 “(하고 싶은 말은) 퇴임식 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대행의 퇴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대행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노대행의 사의 표명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대행의 면직안이 제정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대행은 전날 하루 연차 휴가를 낸 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집거하며 거취 문제를 고심했다. 일선 18개 검찰청의 검사장들을 비롯해 일선 평검사와 부장·차장검사, 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장)·과장급까지 사퇴 요구를 하자 노대행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다.

그는 12일 오전 검찰총장의 참모 그룹인 대검 부장단과 회의를 갖고 “나로 인해 조직이 혼란에 빠진 것 같아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통상의 일과처럼 사건 보고를 받고, 이번 주로 예정된 대외 일정을 취소하지 않는 등 사임할 뜻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검 부장단은 오후 다시 노대행을 찾아가 사의 표명을 요구했다. 부장단은 노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과장단까지 나서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간부들은 이미 노대행의 사퇴 이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데 뜻을 모은 상태였고, 노대행 역시 사퇴 요구가 단순한 항의 표시가 아닌 조직 구성원 대부분의 요구란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개혁의 대상이 되며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리더를

계속 모실 순 없었다”고 말했다.

노대행은 2012년 당시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다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 이어 13년 만에 내부의 반발과 사퇴 요구로 자리에서 물러난 검찰총장이 됐다.

노대행의 퇴임식 이후엔 대검 부장단 서열상 최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총장과 대검 2인자인 차장이 모두 사퇴하며 기조부장이 총장 권한대행을 맡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행을 맡았던 문성우 대검 차장마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당시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이 최종적으로 총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했다.

노대행의 사의 표명과는 무관하게 항소 포기의 여진은 지속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에 항소에 대한 우려와 재검토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 차관은 항소장 제출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노대행과의 통화에서 “항소하면 장관께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 결국 이 차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노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급하는 전화를 걸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교감은 없었는지 등이 추가로 규명돼야 이번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8개 검찰청의 검사장들은 물론 대검의 간부들, 연구관들도 노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정진우·김보름·석경민·김성진 기자

불친절한 교사 늘어나는 이유는?

교사, 잡무로 가정생활 포기할 정도

워싱턴 메트로 지역 교사들이 업무과중에 대한 불만을 집단으로 쏟아내고 있다.

최근 워싱턴 지역 교육위원회 타운홀 미팅에서는 수백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마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교사들은 당국에서 업무를 줄여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교육계 전체에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학교사 린은 “집에서 두 아이의 삶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퇴근 후에도 일을 집에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알지브라2와 지오메트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강학생이 130명에 달한다.

시험문제지를 채점하는데만 모두 41일을 소모한다.

그는 국방부의 탄도미사일 테스트 분야의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3년 전



교사로 전직했으나 이같은 선택을 후회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영어교사 폴은 “작년 8월에 결혼했지만 제대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해 이 결혼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고 밝히기도 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사 맨은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해 왔는데 요즘처럼 일이 많은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교사 평가 시스템, 학교 커

리큘럼 작성, 채점과 성적 등급 매기기, 교육청이 요구하는 각종 통계 자료 제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주장했다.

음악교사 로저는 “학교 당국이 요구하는 각종 잡무의 대부분은 과연 이런 걸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불필요한 절차인데, 물리적인 시간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잡무가 많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오바마케어 공개가입 시작

워싱턴한인복지센터
무료상담 서비스

2026년도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공개가입이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진아)는 이 기간 동안 한인들을 대상으로 보험 점검, 변경, 신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공개가입 기간 중 12월 15일까지 가입을 완료 시 내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완료하면 2월 1일부터 새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버지니아는 1월 30일까지, 메릴랜드는 1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보험료 보조금(EPTC) 2025년 이후 축소 가능성 ▲DACA 수혜자 보험 자격 제한 ▲가

족보험 결함(Family Glitch) 개선회차 유지 ▲저소득층 특별가입(SEP) 제도 폐지 등이 포함된다.

보험 변경 및 새로운 가입은 메릴랜드 주민은 Maryland Health Connection을 통해, 버지니아 주민은 marketplace.virginia.gov를 통해 할 수 있다.

복지센터는 오는 18일(화) 오후 6시 30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026 오바마케어 바로 알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오바마케어 가입 절차, 변경사항, 보조금, 메디케어와의 차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미나 등록 링크: <https://bit.ly/aca2026> 문의: 703-354-6345 / www.kcsdc.org 워싱턴한인복지센터

김윤미 기자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신청 문의
Tel. 703-281-9660

워싱턴 날씨 (°F)

14일(금)	62-36		17일(월)	52-32	
15일(토)	66-52		18일(화)	52-37	
16일(일)	67-40		19일(수)	53-41	

11월 13일(목) 60-3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SALE **특점**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특점**
가치적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2

UNITED MORTGAGE NATION, LLC
NMLS #: 2425871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융자 가능한 주

- * 버지니아
- * 메릴랜드
- * 워싱턴 DC
- * 뉴저지
- * 조지아
- * 웨스트 버지니아
- * 노스 캐롤라이나
- * 사우스 캐롤라이나
- * 델라웨어
- * 알라바마
- * 플로리다
- * 테네시
- * 미시간
- * 캘리포니아
- * 펜실베이니아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Top 50 Mortgage Company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Shane Lee
703-899-8876
slee@umnloan.com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KWVMF ‘베테런스 데이’ 기념식...“감사합니다”

한주류사회서 100여명 참석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감사’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회장 스티브 리, 이사장 존 킬러리)이 11일 오후 3시 재향군인의 날 ‘베테런스 데이’ 기념식 및 헌화식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거행했다.

웃음을 머미게하는 추운 날씨 속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 용사와 그 가족, 주미대사관 윤희진 국방무관, 김인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장, 최태은 미주한미동맹 회

장, 우태창 워싱턴 노인연합회 회장, 김용하 몽고메리 한인회장 등 한주류사회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WVMF 측은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은 토마스 김 KWVMF 이사가 맡았다.

그는 “우리가 ‘베테랑’을 말할 때, 이는 전투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평생의 헌신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오늘 함께 모인 이유는 ‘감사합니다(Thank you)’라는 한 마디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윤희진 국방무관과 노령의 참전 용사는 각각 인사말에서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아니고, 전쟁의 희생에서 얻은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참전용사들이 단순히 기념되는 존재를 넘어, 실제로 지원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연방총한인회 세라 장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한·주류사회 주요 내빈들이 베테런스 데이 기념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엔화 약세·외국인 매도에 환율 또 상승

장중 1,470원 터치

원/달러 환율은 12일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한 단계 더 상승하며 장중 1,470원을 터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2.4원 오른 1,465.7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부진한 미국 고용 지표의 영향으로 2.3원 내린 1,461.0원에서 시작해 1,459.2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오

전 내내 강한 상승세를 탔다.

정오 무렵에는 잠시 1,47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4월 9일 장중 고가(1,487.6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날 환율 상승은 엔/달러 상승, 즉 엔화 약세와 연동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2시께 154.784엔을 찍기도 했다. 이는 지난 2월 13일(154.652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엔화 약세는 미국 연방정부

셋다운(업무 일시 중지) 종료 국면에서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나타난 달러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07% 내린 99.545를 나타냈다. 장중에는 99.6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7.59원이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1.12원 내렸다.

커피·바나나 가격 내린다...“희소식”

베센트 재무장관 언급
내년 상반기 경제회복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부 장관은 12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수일 내에 커피, 바나나 등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은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상당한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FOX뉴스 프로 그램 ‘폭스 앤 프렌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발표로 인해 가격이

“매우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은 2026년 상반기에 경제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베센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관세 수입으로 조달되는 2000달러의 환급 수표가 연봉 1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지만 아직 딱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H마트, 2026년도 탁상용 달력 무료 배포

아시아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1월 16일(일)부터 버지니아 및 메릴랜드 지역 전 매장에서 무료 탁상용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달력은 H마트 스마트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한정 수량으로 제공되며, 2025년 어린이 그림대회 수상작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매장별 연락처 및 주소 정보가 포함되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H마트는 “항상 H마트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2026년에도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H마트 매장으로 하면 된다.

H마트 또, 사용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Loyalty Membership Card를 소개하며, 1000 포인트 (\$1 = 1 point)



적립시 10달러 H마트 상품권을 지급하며, 이 외에 다양한 할인 및 행사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마트 스마트카드는 매

장 내 고객센터센터뿐만 아니라 H마트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애플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랑의 쌀’ 전달 행사 열려

미국의 대표적인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인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워싱턴 통합 노인연합회(회장 우태창)는 버지니아한인회와 함께 오는 11월 27일(목) 정오(낮 12시)에 버지니아 버크 소재 H마트에서 ‘사랑의 쌀 전달’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워싱턴 통합 노인연합회 우태창 회장

은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수확에 대해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을 서로 배려하는 날”이라며 “효도하는 마음으로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그분들의 아픔 그리고 외로움을 함께 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문의: 202-258-6384

후원금: Pay too the Order of : K.S.C.A (1609 Great Falls St, Suite 243, McLean, VA 22101

홍알벗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나하제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렌트 전문
-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탈북청년 토크 콘서트

주제: 북한 인권과 자유통일

자유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는 결코 빠져서는 안될 핵심 요소이며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때입니다. 올 한해 미주통일연대 워싱턴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마지막 행사로 “탈북청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북한 인권의 현실을 생생히 듣고 자유통일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패널



이일규
-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 정무참서관
(영상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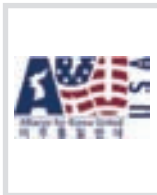
강철환
- 북한전략센터 대표
- “평양의 어항” 저자
(영상참여)



이현승
- 북한청년리더 총회회장



장은숙
- 폴브라이트 탈북장학생



전수진
-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인권위원장



김유숙
-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회장
- 2025년 사업결과보고

일시 2025년 11월 23일 (일) 오후 4시

장소 한인커뮤니티센터 2층 대강당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문의 김유숙 회장 (202-577-3284)
*간단한 저녁이 제공됩니다.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Alliance for Korea United - Washington DC Chapter

주최: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회장 김유숙, 부회장 지순자, 고문 에스더김, 장종철)

미 항모 진입, 카리브해 긴장 고조

“마약 밀매 차단 역량 보장”
베네수엘라 게릴라전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의 항공모함(항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에 도착했다.

미 해군은 포드 항모 전단이 11일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는 멕시코 이남 중남미 지역과 주변 해역, 카리브해 등이 포함된다.



미 해군의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

[미 해군 제공]

2017년에 취역한 포드 항모는 미국의 최신예 항모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이기도 하다.

항모 전단은 이 지역에서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수행해 온 미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전개를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들을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미군 자산을 카리브해로 보내 ‘마약 운반선’을 격침해 왔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 미국의 진짜 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언론도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부 전복 목적으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상대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76명을 살해했다.

이 지역에는 이미 군함 8척, 원자력 추진 잠수함, F-35 전투기 등이 배치됐다.

손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 전력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고 조국가 적 범죄단체들을 제해·해체하기 위한 기존 역량을 강화·보강할 것”이라

고 밝혔다.

국방력에서 미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열세라는 평가를 받는 베네수엘라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투 훈련까지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 “강력한 영토 수호”의 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베네수엘라 군은 현실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해 미군을 상대로 ‘게릴라 전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러 베네수엘라 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이른바 ‘무정부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AN도 항공편 무더기 결항 우려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연방정부 섰다운 사태 여파
14일부터 하루에 60편 감축
항공관제사 부족 문제 원인

연방정부의 장기간 섰다운으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취소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샌디에이고 국제공항(SAN)도 지난 7일부터 항공편 지연과 결항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 섰다운으로 인한 교통부(DOT)의 항공 운행량 축소 계획 발표에 이은 것이다.

지난 5일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전국 40개 주요 공항에서 항공 운행량을 최대 10%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6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전국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 운행량은 7일 4%를 시작으로, 11일 6%, 13일 8%, 14일 10%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11일 기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서는 하루 평

균 출발 300편, 도착 300편 등 총 600여편의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다. 정부의 감축 조치 시행으로 인해 샌디에이고의 항공편은 하루 약 60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편 감축 조치는 연방정부 섰다운으로 인한 항공교통관제사 부족에서 비롯됐다.

연방정부는 관제사를 ‘필수 근로자’로 지정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게 했지만, 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교통부 관계자는 “관제사 부족이 공항 시스템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운행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지난 10월 27일~11월 2일 한 주 동안 전국에서 총 2740편의 항공편 취소 사태가 발생했다며 섰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세나 기자



도요타 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공장 전경

[도요타 북미법인 제공. 재판배 및 DB 금지]

도요타, 美배터리공장 첫가동

100억달러 대미 추가투자 공식화

일본 자동차 제조사 도요타가 북미 지역에서 첫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돌입했다고 도요타 북미 법인이 12일 밝혔다.

도요타 발표에 따르면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시에 위치한 배터리 제조시설이 공식 가동을 개시했다.

도요타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에 따라 2021년부터 총 140억달러(약 20조 6천억원)를 투자해 차량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왔다.

도요타가 미국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요타의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은 14개 생산라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배터리 전기차(BEV)를 위한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북미 지역에서 최근 들어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 데 반해 도요타가 강점을 가진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북미 하이브리드차량 시장에서 도요타의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한편 도요타는 이날 발표에서 “미래 모빌리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미국 내 100억 달러(약 14조 7천억원)를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일본 방문 기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부터 도요타가 미국 전역에 100억 달러(약 14조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도요타가 공식적으로 대미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도요타는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불씨 남았는데 철수... 부실대응 조사 착수

대배심, LAFD에 소환장 발부
“산불 당시 통신 기록도 내리”
방화 용의자는 내년 4월 재판

연방 정부가 올해 초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발화 원인과 초동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화재 위험 지역 보험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거주 보험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최근 연방 대배심이 LA소방국(LAFD)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팰리세이즈 산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소환장에는 2024년 12월 31일 오후 10시부터 2025년 1월 7일 오전 10시까지의 문자 및 통신 기록 등 LAFD의 산불 대응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배심은 당시 라크먼 산불의 잔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채 남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재발화하면서 팰리세이즈 산불로 번진 점에 대해 소방 당국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LAFD 내부에서도 이미 초동 진화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소방관이 “잔불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현장 지휘관이 철수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이튼 산불과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주민들은 알타데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카르도 라라 거주 보험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023년 보험국이 보험사의 정책 변경 과정에서 규제를 강화해, 보험사들이 화재 위험 지역 주민의 보험 가입과 갱신을 거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민간 보험을 들지 못한 채 주정부가 운영하는 페어플랜(FAIR Plan)으로 내몰렸으며, 화재 피해 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불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거세지고 있다. 캐런 베스 LA시장도 논란이 확산되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LA경찰국(LAPD)은 사후 보고서를 통해 “팰리세이즈 산불은 전례 없는 규모였음에도 LA소방국(LAFD)과의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비엔나 NEW 싱글

\$2,795,000

방 6, 화 6.5, 4832 SqFt.
럭셔리 모던 스타일, 2026 1월 완공

맥클린 NEW 싱글

\$3,299,000

방 7, 화 6.5, 5130 SqFt.
Ready for move-in!

베데스타 NEW 싱글

\$3,195,000

방 5, 화 4.5, 3400 SqFt.
지금 전화주세요!

캔스턴 싱글

\$1,895,000

방 5, 화 4.5, 3160 SqFt, 2023년도 집
노스베데스타 근처, 꼭 보셔야 할 집!

베데스타 델리

판매가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버지니아 와이너리 사업 및 토지 매물

- 규모: 120에이커 (약 48만㎡)
- 시설: 테이스팅룸, 코티지, 창고, 와인 공장, 연못, 주차장 (104대 수용)
- 현황: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와이너리
- 매매가: \$7,500,000

자연 경관 뛰어난 프리미엄 와이너리. 관광·이벤트 운영 병행 가능

투자용 상가 건물

- 매매가: \$8,000,000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우량 상가. 투자자 강력 추천!

냉동·냉장 창고 매물

- 위치: 메릴랜드 볼티모어
- 면적: 16,000 SF
- 설비: 냉동·냉장고 완비
- 매매가: \$1,500,000

유통업, 식품물류, 온라인 배송업체에 적합한 최적 창고!

저희는 **뉴욕 코리니 부동산 Koriny New York** 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제 **미국 16개 주요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민·역이민 관련 세금 컨설팅, 주택 구입 및 투자 절차 지원, 그리고 기업의 초기 정착(랜딩) 서비스 등 부동산 전 영역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과 워싱턴 D.C.를 연결하는 부동산·투자 세미나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10월에는 워싱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더불어, 한국 NH금융,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욕 코리니 부동산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잇는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며, 최고의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인제, 어디서든 만만치 리스팅상담하실수 있습니다

703.928.5990 k@dwelldwashington.com

승경호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 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 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트럼프, 조지아 사태 반성? “기술 인재를 해외서 데려와야”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조지아 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은 적극적으로 미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폭스뉴스 ‘더 잉그렘 앵글’ 인터뷰에서 “어떤 기술들은 미국 내에 없다. 그런 경우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다”며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bring in talent)”고 말했다. 이는 사회자가 ‘H-1B 비자 정책’과 관

련해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기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며 “배터리 제조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로, 그들은 500~600명 정도를 데려와 현지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려 했다. 그런데 그들을 내쫓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이민단속 당국이 현대차그룹-LG에너

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현장을 급습해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구금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이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고 할 때, 오랜 기간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이

제 미사일을 만들자’고 할 수는 없다”며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고물가’ 비판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경제를 만들고 있다”며 “비용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훨씬 낮다”고 반박했다. 다만 “소고기와 커피는 조금 비싸다”며 “커피 관세를 일부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홍 기자

‘170만 팔로워 보유’ 케네디 외손자, 뉴욕서 하원의원 도전장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외손자 잭 솔로스버그(사진)가 뉴욕을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CNN 방송 등이 11일 보도했다.

케네디 가문은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케네디 가문 직계 손자 가운데 연방의원 선출직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N 등 미 주요 방송은 11일 “32세인 잭 솔로스버그가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뉴욕 제12선거구 하원의원직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32세인 솔로스버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호주 미국대사와 작가 에드윈 솔로



스버그 부부의 막내아들이다. 그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욕 제12선거구에서 제리 내들러 민주당 하원의원의 은퇴로 생기는 공석에 도전한다.

솔로스버그는 지난해 내들러 의원의 은퇴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에 “애들이 탐색 위원회를 만들었어”라고 적으며

이미 출마 의사를 암시한 바 있다.

출마를 위해선 우선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이 지역구에는 솔로스버그 외에도 마이카 래서 뉴욕주 하원의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구호 단체를 설립한 리암 앨킨드 등 여러 인사가 도전장을 던져 경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솔로스버그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케네디 가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지역(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말하며 지역 기반을 강조했다. 그는 뉴욕의 명문 사립학교 컬리지잇 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영상에서 “지금 미국은 전환점에서 있다”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범인’이 초래한 생활비 위기, 의료·교육·보육 등 사회 프로그램 삭감, 부패 위기 등 모든 수준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백악관 안에서 승자와 패자를 뽑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가 아닌 연줄주의”라며 “한 위험한 인물이 정부 세 권력을 모두 장악한 헌법 위기 속에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솔로스버그는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진보 성향 민주당원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팔로워 수는 약 170만명에 달한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자신을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하며 “세로형 영상 시대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감각이 젊은 유권자들과의 연결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할아버지인 케네디 전 대통령에 대해 “틀을 깬 사람이었다”며 “할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네디 가문은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명문가로 꼽힌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제 로버트와 에드워드는 모두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로버트의 아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건복지장관을 맡고 있다.

한영혜 기자

오바마, 한국전 참전용사들 앞 ‘깜짝 등장’ …“희생에 감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재향군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한 노병들에게 깜짝 인사를 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엑스(X)에 자신이 퇴역군인들과 그 가족이 답습한 여객기 안에서 인사말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전날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며 인사를 건넨 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여러분과 가족의 특별한 봉사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희생은 늘 영예롭게 기념될 것이며, 우리는 깊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난 참전용사들은 비영리단체 ‘아너 플라이트 네트워크(Honor Flight Network)’가



참전용사들 탄 여객기에 등장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엑스 계정 캡처]

주관한 워싱턴DC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이다.

이 단체는 미국 각지의 참전용사들에게 워싱턴DC 기념비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참전용사와 가족 등 80여명이 탄 항공기가 워싱턴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하자 직접 기내에 올라 인사말을 한 뒤, 노병 한 명 한 명과 악수하고 기념 메달인 ‘프레지던셜 챌린지 코인(Presidential Challenge Coin)’을 선물했다.

정재홍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절인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락초 분) 웨일리노래방

미락초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이탈리아 수사 착수 “부유층, 1억 내고 인간 사냥관광”

이탈리아 검찰이 1990년대 보스니아 내 전 당시 사라예보에서 벌어진 이른바 ‘인간 사냥관광(sniper tourism)’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쟁 중 민간인을 돈을 내고 저격했다는 혐의다.

영국 가디언과 이탈리아 라 레푸블리카 등은 11일 “밀라노 검찰이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에 금품을 주고 사라예보 주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서방국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수사는 알레산드로 고비 검사가 지휘하고 있으며, 혐의는 ‘잔혹하고 비열한 동기에 의한 자발적 살인’(voluntary murder aggravated by cruelty and abject motives)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이탈리아 작가 에지오 가바체니(Ezio Gavazzeni)가 지난 2022년부터 사건의 증거를 수집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비롯됐다. 그는 사라예보 전 시장 베냐미나 카리치(Benamina Kari)의 보고서와 보스니아 정보국 관계자 증언,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에 사건을 제기했다.

가바체니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이탈리아·영국·프랑스·독일 등 서방 국가의 부유층 인사들이 세르비아계 민병대에 거액을 지불하고 사라예보 외곽



셀카 세대인 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으로 효과를 본 더치브로스.

[인스타그램 캡처]

언덕에서 민간인을 조준 사격하는 ‘저격 관광’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세르비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의 측근들과 접촉해 이동 및 장비를 제공받았고, 트리에스테에서 출발해 베오그라드를 거쳐 사라예보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참가자들은 지금 가치로 약 8만~10만 유로(약 1억

1000만~1억4000만 원)를 지불했다”며 “사격 대상에 따라 가격이 달랐고, 어린이가 가장 비싸며, 무장 남성·여성이고 다음, 노인은 무료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혹은 종교적 동기가 아닌, 단순한 쾌락과 사격에 대한 집착으로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바체니는 “이들은 흥기를 좋아하

고 사냥을 즐기는 부유한 사람들로, 단순히 ‘재미’를 위해 사람을 쏘다”며 “이는 명백히 약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 다섯 명의 이탈리아인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검찰이 조만간 이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슬로베니아 감독 미란 주파니치의 다큐멘터리 사라예보 사

파리(Sarajevo Safari)가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이 작품에는 전직 세르비아군 병사와 계약자가 등장해 “서방 관광객들이 언덕에서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쏘다”고 증언했다. 세르비아 참전용사 단체들은 이를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해 왔지만, 이탈리아 검찰은 가바체니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 상태다.

사라예보 포위전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년간 이어진 현대사 최장기 포위전으로, 세르비아군의 포격과 저격으로 1만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시민들은 거리마다 ‘저격 주의’ 표지판을 피해 몸을 숙인 채 이동해야 했고, 메사렐리모비치대로는 ‘저격수의 길’로 불렸다.

특히 1993년 한 저격수에게 희생된 연인 보슈코 브르키치(25)와 아드미라 이스미치(21)의 죽음은 다큐멘터리 사라예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며 전쟁의 비인간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다.

밀라노 검찰은 “30년 가까이 묻혀 있던 사건이지만, 수집된 증거는 충분히 신빙성이 높다”며 “관련자 식별과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일본, ‘과잉관광’ 대응…외국인 출국세·비자 수수료 인상 검토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각종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1000엔(약 9500원)인 ‘국제관광객 여객세(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통 혼잡 해소와 외국인 관



일본 하네다의 도쿄국제공항.

[연합뉴스]

광객의 규정 위반 대응 등 오버투어리즘 대책에 활용할 방침이지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이가 납부

해야 하므로, 인상 시 일본인 부담도 함께 늘어날다. 이에 정부는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급 수

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0년짜리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1만5900엔(약 15만원)으로,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5000원)까지 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단수 비자 수수료는 약 3000엔 수준이며, 이를 미국(약 27만원)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의 비자 수수료 인상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단기 체류하는 외국

인에게도 사전심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외국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관광 공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본 방문을 꺼리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은 3165만500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단기간에 3000만명을 돌파했다.

정재홍 기자

사막에 묻힌 시신 2구…러시아 암호화폐 백만장자 부부였다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백만장자가 된 러시아 부부가 실종 한 달 만에 두바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12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지

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종된 러시아 국적 로만 노박과 그의 아내 안나 로박이 두바이 근처 사막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시신은 곳곳이 훼손

된 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한 달여 전 투자 권유를 받고 두바이의 산악 휴양지 하타로 떠났다가 실종됐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목격된 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하타 산악 리조트 근처 호수에서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러시아 사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납치된 노박은 지인들 연락처로 “오만 국경의 산 속에 갇혀 있으며 15만2000파

운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부친 사람은 없었고, 결국 부부는 사막에 묻힌 거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 “수사 결과 살인범들이 부부를 납치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신혜연 기자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 / 척추신경 / 손 / 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직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평없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센터(마+마트)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안아름(마+마트)와 첼트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영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LOTTE^{PLAZA}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NOV.13th - NOV.20th, 2025

닥터스 탄소사매트

#압도적 초경량 #전자파 완벽차단 #걱정없는 워셔블

Dr's CARBON FAR INFRARED HEATING MAT

SINGLE

~~\$229.00~~

\$179.99



60,000가닥의
탄소실로 만들어낸
초슬림 온열매트

QUEEN

~~\$299.00~~

\$259.99

Dr's Mat
닥터스 탄소사매트 제품구성



2021 CSBA 탄소매트 부분
중앙일보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1위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iggott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000 Center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6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800 Farmwell Hunt Place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90 Eden Street
Herndon, VA 20120

Ellicott City, MD
5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ville, MD
8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ville, MD 21228

Rockville, MD
13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야당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항소포기 대규모 규탄대회

국민의힘 추산 1만5000명 모여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장동혁 “독재자, 존재 자체가 재앙”
송언석 “이 정권 자체가 범죄정권”

국민의힘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집결한 당원들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탄핵하라” “물러나라”고 외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을 집중 겨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만배의 한마디면 이재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이재명은 존재 자체로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의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며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에서 집결한 당원들이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며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주장했다.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했다. 이어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서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라며 “7400억원의 무지막지한 돈을 대장동 일파배를 채워주는 이 범죄자 주권 정부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

하라’고 한 게 바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곤 “성남시장 당시 관변단체인 성남의제21 사무국장 김현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 성남시의원 김용이 대장동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성남시 수뇌부”라며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에 1만5000여 명의 당원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범죄는 유죄가 나면 이재명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사안”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못 해서 피고인들이 거짓말하게

판 깔아주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냐”고 했다. 또한 “이번 항소 포기로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며 “대장동 업자들은 전부 재벌이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강력 징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인식”이란 비판이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집단 항명’ 프레임은 ‘공포 정치’를 통한 본질 왜곡”이라며 “검찰 구성원 전체를 ‘처단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건 초법적 태도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공동 전선

을 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을 빼놓고는 (항소 포기) 그 무리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사건에 검찰이 무력하게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법과 지방자치치를 흔들면 그 부메랑은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양수민 기자

대장동 항소심 ‘이 대통령 선거법 무죄’ 재판부에 재배당

(형사6부)

배당된 형사3부 법관이 남육 동기
법원 기준 따라 형사6부에 재배당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재배당됐다. 기존에 배당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의 법관 3명 중 1명이 피고인 남

육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에서다. 새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형사6부로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날 “형사3부는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인데 형사3부 유제민 서울고법 판사가 남육 변호사와 같은 37기다. 새 재판부는 ‘직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로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다. 정

재오(사법연수원25기)·최은정(30기)·이예슬(31기) 고법판사가 심리하고 합의해 결론을 낸다. 이예슬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최은정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김문기 몰랐다” 등 발언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

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재판을 서울고법 형사7부가 하게 됐으나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추후 지정해 중단된 상태다.

김준영 기자

李 “우린 하나일 때 강하다” 정청래 “찰떡 공조로 지선 승리”

10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탁’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로 목표포로 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 확보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광주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거리와 골목 곳곳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해온 동지들 있었

기에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 위기를 이겨내 네 번째 민주정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전 경기 성남분당갑, 인천 계양을 지역위원장”이라 소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같은 내용의 축사를 대독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존 원고 대선 즉석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

을 위해 당·정·대가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찰떡같은 공조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단결해 헤쳐 나가겠다”며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모든 초점은 정부의 성과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비상계엄이) 1년쯤 지나니까 고개 쳐들고 내란 옹호하거나 내란 동조하고 내란 정당화하는 그런 움직임마저 있

다”며 “우린 다시 한번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될 그럴 시기”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원내·원의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코로나 팬데믹 등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열지 않았다. 이날은 254명이 6년만에 모여 흰색 복장을 맞춰 입고 모여 내년 지방선거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책임과 기회의 시험대”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지역에서 꽃피우고, 국민의 신뢰로 다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방안도 논의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교제폭력 처벌 이력은 부적격자 기준에 들어가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대한 죄를 범해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것도 부적격 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찬규 기자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1. 센터빌 벅들 타운

SOLD

\$589,000



방3, 화2.5, 차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670,000



방4, 화3.5, 차고2, 최고 학교, RT267/7, 밀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음

OPEN HOUSE 11/16/25 (SUN) 1PM-3 PM
43180 Loudoun Reserve Dr, Ashburn, VA 20148

3. 맥클린 콘도

\$39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텔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Pending

1. Bristow 55+ single
방4, 화3.5 차고 2 \$750,000

2. Haymarket 55+ Villa
방3, 화3.5 차고 2 \$670,000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차고1, 뒷숱, 최고 학교, 전부 리모델링 포토맥 울/RT95, RT1, Rt234, 디씨출근 편리

8.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1,699,000



1메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3 선별,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데크,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교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H마트 주차장 건너편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중앙일보건물2층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드레즈르 제과점 옆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미등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Wonderful TOUR
2025-26 Yearly Schedule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3899+항공
11/23~11/27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490+항공

2026
01/21~02/02 신비의 인도 \$3790+항공
01/27~02/11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9990+항공
02/01~02/11 호주&뉴질랜드 \$3190+항공
02/02~02/06 코스타리카 \$1990(항공포함)
02/07~02/15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02/19~03/06 아프리카&두바이 \$12500+항공
02/23~03/05 프랑스 일주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4290+항공(동반자 \$2150+항공)
02/25~03/03 페루 일주 \$309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35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56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3290+항공
03/22~03/28 페루 일주 \$3090+항공
03/16~03/26 프랑스 일주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4290+항공(동반자 \$2150+항공)
04/14~04/2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2990+항공
04/22~05/02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4/29~05/12 동유럽&크로아티아&돌로미티 \$4590+항공
04/29~05/06 정통 동유럽 \$2990+항공
05/05~05/12 크로아티아&돌로미티 \$2990+항공
05/05~05/15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05/11~05/21 고품격 고국일주 2차 \$2990+항공
05/12~05/22 스페인&포르투갈 \$3590+항공
05/19~05/29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45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6/16~06/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2990+항공
06/17~06/28 영국일주 \$5890+항공
06/20~07/03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5990+항공
06/23~07/03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06/30~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1690+항공
07/01~0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6890+항공
08/01~08/14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13박 14일 \$5990+항공
08/04~08/14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1690+항공
08/13~08/19 알래스카 일주 \$2990(항공포함)
08/21~08/28 알래스카 크루즈 \$2190+항공(인사이드)
09/04~09/07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2025-26 Yearly Schedule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3899+항공
11/23~11/27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490+항공
2026	
01/21~02/02	신비의 인도 \$3790+항공
01/27~02/11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9990+항공
02/01~02/11	호주&뉴질랜드 \$3190+항공
02/02~02/06	코스타리카 \$1990(항공포함)
02/07~02/15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02/19~03/06	아프리카&두바이 \$12500+항공
02/23~03/05	프랑스 일주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4290+항공(동반자 \$2150+항공)
02/25~03/03	페루 일주 \$309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35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56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3290+항공
03/22~03/28	페루 일주 \$3090+항공
03/16~03/26	프랑스 일주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4290+항공(동반자 \$2150+항공)
04/14~04/2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2990+항공
04/22~05/02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4/29~05/12	동유럽&크로아티아&돌로미티 \$4590+항공
04/29~05/06	정통 동유럽 \$2990+항공
05/05~05/12	크로아티아&돌로미티 \$2990+항공
05/05~05/15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05/11~05/21	고품격 고국일주 2차 \$2990+항공
05/12~05/22	스페인&포르투갈 \$3590+항공
05/19~05/29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45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6/16~06/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2990+항공
06/17~06/28	영국일주 \$5890+항공
06/20~07/03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5990+항공
06/23~07/03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06/30~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1690+항공
07/01~0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6890+항공
08/01~08/14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13박 14일 \$5990+항공
08/04~08/14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1690+항공
08/13~08/19	알래스카 일주 \$2990(항공포함)
08/21~08/28	알래스카 크루즈 \$2190+항공(인사이드)
09/04~09/07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최고급 여행사
고품격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국일주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침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10박11일(제주포함) | \$2990+항공
8박 9일(내륙관광) | \$2490+항공

1차 4월 14일~4월 24일
2차 5월 11일~5월 21일
3차 6월 16일~6월 26일(영&한)
4차 9월 15일~9월 25일
5차 10월 13일~10월 23일
6차 10월 20일~10월 30일
7차 10월 27일~11월 06일

상기 고국여행에 일본여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동경	오사카	동경&오사카
연합투어	3박 4일 \$1149+항공	3박 4일 \$1149+항공	5박 6일 \$1899+항공
	일출발	화출발	화출발

*** 2인 이상 출발보장**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에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업그레이드!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동대문 노보텔과 \$240 차이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일반부와 \$170차이

소노캄 거제
일반부와 \$170차이

그랜드 조선 부산
일반부와 \$180차이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일반부와 \$180차이

롯데호텔 제주
일반부와 \$250차이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매주 2인 이상 출발보장] 서울 사무소 직영 운영

내륙 6박 7일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제주도 2박 3일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서남권 3박 4일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제주+동해 6박 7일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동해안 4박 5일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전국일주 9박 10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동남아
연합투어
방콕/파타야 3박 5일 | \$490+항공
하노이/하롱베이 3박 5일 | \$690+항공
다낭 3박 5일 | \$450+항공
나트랑/달랏 3박 5일 | \$450+항공
대만 3박 4일 | \$690+항공
싱가폴 3박 5일 | \$85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세브란스 (미국국적) 남 \$720/여 \$770
한국 프리미엄 병원 진료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현대아산병원 경희대병원 가천대길병원

2025년 연말특선
성극 노아
+아미쉬마켓
- 2025년 마지막 공연
당일 12/4, 18 \$199

스트라스버그 기차 & 룩우드 가든
당일 12/5, 19 \$189

굿바이 2025 뉴욕
- 옛지 전망대
- 락펠러 점등 트리
- 코리아타운 석식 업그레이드
1박2일 12/8, 15, 29 \$499

X-Mas 부쉬가든
- 빛으로 물든 부쉬가든의 마법 축제
- 석식 포함
당일 12/11, 18 \$169

라디오시티 라켓쇼 & 뉴욕
당일 12/17 \$199
1박2일 12/22 \$499

2026년 새해맞이
- Concord Point Light
- MD Havre de Grace에 있는 36피트 등대
당일 1/1 | \$99

동부투어
미등부&캐나다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5박 6일 \$1350

뉴욕&천섬 나이아가라
당일관광 소수인원 출발가능
3박 4일 \$899

뉴욕
1박 2일 \$399

뉴욕&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2박 3일 \$650

서부투어
미서부 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넌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넌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넌+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
5박 6일 \$130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노만석, 그정도 의지면 지휘 요구했어야” “사표 왜 냈겠나”

〈정성호〉

〈야당〉

정성호 “신중 검토는 일상적 얘기”
차관의 선택지 전달 의혹도 부인
검사 반발엔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야당 “노 대행, 소설 쓸 이유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자신이 지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국회에 와 있었다. 예결위가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끝나서 다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항소 시한인) 7일 저녁에 예결위가 휴회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받고, 이후 예결위가 끝난 뒤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취지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른쪽 사진은 이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뒤 퇴근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임현동·김종호 기자

항소 포기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의표명까지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 1심 선고	
11월 3일	중앙지검 수사팀 항소 의견 취합	
5일	오후 4시쯤 중앙지검 수뇌부 항소 제기 방침 결정 오후 5시36분쯤 대검 반부패부에 승인 요청	
6일	대검 반부패1과장 → 반부패부장 보고	
7일 (항소 시한 만료일)	오후 7시30분쯤 대검 반부패부장, 재검토 지시 오후 11시53분쯤 중앙지검 4차장검사, 항소 불허 통보	
8일	오전 3시쯤 대장동 수사공판팀 “법무부 장관이 반대” 낮 12시쯤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9일	오후 2시30분쯤 노 대행 “법무부 의견 참고해 판단” 오후 3시40분쯤 정 지검장 “중앙지검 의견 관철 못 해”	
10일	오전 10시30분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항소 의견에 신중 검토 지시한 것” 대검 과·부장단·연구관, 18개 지검장 등 노 대행 사퇴 촉구	
11·12일	11일 노 대행 연차 휴가 내고 자택 침거, 12일 사의표명	



의 복수 선택지를 전달했다는 ‘하명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지휘하려면 관행적으로 서면 또는 공문으로 해 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러한 정 장관의 발언은 12일 사의를 표명한 노 대행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법무부에서 7일 오후 5시까지도 답이 없다가 오후 8시쯤 항소하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일 ‘신중 판단 필요’ 수준의 발언만 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노 대행은 하루 뒤인 7일 ‘항소하면 안 된다’는 연락을 법무부로부터 받았으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 장

관은 12일 예결위 정회 중 만난 취재진에게도 “(신중 검토를 하라는 게) 무슨 외압이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다른 법무부 관계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 장관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 정도로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한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요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이나 공소청 문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혹 부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법무부 장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예결위에서 “보이지 않는 뒷선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노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사표를 냈겠느냐”(주진우 의원), “노 대행이 스스로 소설을 써서 지어낸 이유가 전혀 없다”(신동욱 의원), “검찰을 걸레로 만들어서 갖다 버릴 생각이나”(곽국영 의원) 등의 비난

이 쏟아졌다.

이에 정 장관은 오히려 검사들의 반발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겠다”고 했고, 외압 논란을 촉발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제재돼야 한다”며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본인의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전 정권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나한·박준규·조수빈 기자

“하나회 숙청했듯 정치검사 숙청” 파면법까지 꺼낸 여당

‘항소포기 반발’ 검찰에 전면전 선언
징계법 폐지, 공무원처럼 파면 추진
정청래 “검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어”
김병기 “모든수단 총동원, 반란 분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항명에 가담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들이 의원면직(스스로 원해서 물러남)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개시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5일 검사징계법을 한 차례 개정해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징계청구권을 부여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준(準)사법기관인 검사에게 법관에 준하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대 해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탄핵에 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이 폐지되면 변호사 활동과 공직 재임용이 각각 3년·5년 제한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검사징계법 폐지가) 검사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정책보좌관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임현동 기자, [사진 문화일보]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수행상의 독립성과 공정성·객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징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검사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

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로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가 불필요한 이유를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설

명했지만, 민주당은 같은 사건을 “조작된 수사·기소”라고 주장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나온 적이 있느냐”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소동을 벌이는 건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검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는 이날 법무부에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접수했다. 요청서에는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욱 변호사가 최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관련 사건 공판에서 “정일권 부장검사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남욱의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준호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타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www.hyebanmd.com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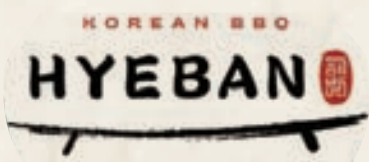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홀 서버 (Hall Server)



우메켄 연말 감사대축제,

더블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 12월 31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니연신 부부



올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켄**을 선물하세요

10% 할인 + 무료 선물

\$98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100억
유산균
\$39

OR



리포포-C
\$68

\$165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발효 미네랄
L칼슘
\$69

OR



건강 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SALE + 선물 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화장품 세트



~~\$399~~ ▶ \$359



L칼슘 (\$69)

무료증정



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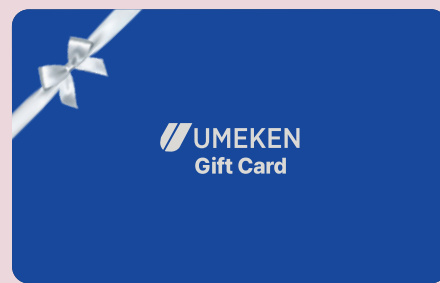
타쿠미 2박스 (\$56)

무료증정



건강을 담은 특별한 선물!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되시나요?
우메켄 기프트카드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이들이 원하는 건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특별한 날, 진심을 담은 선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속있는 연말선물 - 우메켄 기프트카드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가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 마을 (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올림픽 후보지 전북, 33개 종목 중 8개 서울에 맡긴다

〈2036년 하계〉

전북, 경기장 4개 신설 추진했지만 IOC “기존 인프라 활용하라” 권고
전북 협조요청 받은 서울수도 수용
전주선 11개, 대구·청주 등서도 열려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인 전북특별자치도(전북도)가 서울 9개 경기장에서 일부 경기 개최를 요청해 서울시가 받아들였다. 계획대로라면 총 33개 종목을 치르는 전주올림픽은 서울에서 8개 종목, 전주에서 11개 종목이 각각 열린다. 나머지는 대구·광주·청주 등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12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전북도에 발송했다. 전주올림픽 개최를 위해 서울 시내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하겠

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앞서 6일 서울시·서울시설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시설 사용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전북도가 실제로 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육상 종목이, 신축 중인 잠실스포츠클럽스에선 농구 경기가 열리게 된다. 장충체육관에선 배구 예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 예선이 진행된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 핸드볼 경기장, 테니스경기장 등도 활용된다.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북한문화시설 서울아레나에선 올림픽 배구 결승전이 열리게 된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2월 국내 유치 후보지를 선택할 당시, 전북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대구·광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권고 등으로 달라졌다. 전북도는 4개 경기장 신설을 추진했지만 IOC가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종목 분산 배치에 대해서도 IOC는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소통하는 등 컴팩트한 경기장 배치를 선호한다’고 알려왔다. 우수한 경기 시설이 밀집한 서울시에 전북도가 시설 사용을 요청한 배경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애초 서울은 경쟁 상대였기에 연대 도시 명단에 없었지

만,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시설 활용을 요청하는 등 꾸준히 검토해 왔다”며 “서울시가 연대 도시에 포함되면 국제 규모 경기장 등 88올림픽 레거시(유산)를 활용해 전북(전주시)이 올림픽 후보지로 결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해 연말까지 2036년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방식을 결정하고, 2027~2029년 사이에 개최 도시를 최종 선정한다.

전북도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는 조연도 나온다. 전 IOC 평가위원인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은 “중국이 홍콩·마카오·광둥에서 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전북이 홀로 올림픽

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기장·숙박·문화 시설 등이 우수한 서울과 공동으로 나선다면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서울과 공동유치시 ‘지속가능하고 유산이 남는 올림픽’이라는 IOC의 올림픽 아젠다와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공동개최 방안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강남스타일·케이팝대문헌터스로 유명한 서울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린다면 전주 입장에서 유치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배원 전북도 올림픽추진단 유치총괄과장은 “서울과 공동 유치는 아니고, 대구·광주 등처럼 서울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 일부 종목을 여는 ‘연대 도시’ 개념”이라고 말했다.

문화철 기자, 전주=김준희 기자



‘차아닌 마약’ 제주 해변 수색 해병대 9여단 장병들이 지난 11일 오후 제주 북부 지역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 물체를 수색하고 있다. 이날 수색에는 경찰과 해경, 자치경찰, 바다환경지킴이 등도 참여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9월 말부터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중화권 ‘차’(茶) 제품으로 위장해 포장한 케타린 마약류 모습.



[사진 제주해양경찰청]

특검, 황교안 영장 청구 계엄날 “우원식·한동훈 체포” 선동 혐의

체포영장 집행 뒤 곧바로 구속영장
“계엄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도를 낸 것이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을 이번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황교안

조태용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에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했다. 또 지난달 27일과 31일 특검팀이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문을 열지 않았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영장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오전 5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 담화 이전 계엄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가 있다.

김보름 기자

경찰, ‘최민희 딸 결혼식 축의금’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희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0일엔 보수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11일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종합 국감 도중 신상발언을 통해 “혼인 당사자의 계획에 따라 올가을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식이 적합했다 해도 논란을 예측하고 장소, 일정, 부조, 화환을 막는 좀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많이 자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고 사과했다.

장구슬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공존의 원칙을 세워라... 유럽의 오판에서 배워야

이재승의 퍼스펙티브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돌아오는 길, 관장이 차를 몰며 나지 막이 말했다. “당신의 연구가 장 모네의 이상과 닿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추상이 아니라 관계의 설계이며 공존은 제도화된 신뢰라는 사실이 다시 상기됐다.

유럽이 자신을 다시 정의한 도시

마스트리흐트는 ‘마스(Maas) 강의 도하점’이란 뜻을 지닌 도시다. 로마 제국의 전초 기지에서 시작해 벨기에·네덜란드·독일 경계에서 늘 ‘사이’의 역사를 살았던 도시였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이 새로운 질서와 공동체의 약속을 찾을 때 이 도시는 자연스럽게 상징이 됐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들은 이곳에 모여 통화 동맹과 정치 통합,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밤새 논쟁을 벌였다. 상이한 이해관계로 시작해 결국 절충의 끝에서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서명됐고, 지금 유럽연합(EU)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약이 체결됐던 림뷔르흐 주청사 회의장에 안내를 받아 들어섰다. 회원국 국가들이 원형 테이블을 둘러섰고, 창밖으로 마스 강이 흘렀다. 한때 국경의 상징이던 강이 이제 연결의 강이 됐다. 그 적막한 공간에서 다시 생각했다. 공존이란 완전함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건디는 기술이다. 마스트리흐트의 평화는 완벽한 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감내하며 지속시키는 힘 위에 세워졌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유럽은 다시 분열과 불확실성 속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문제, 에너지 위기 등 수많은 균열이 존재하지만, 공존의 모델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완결된 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돼야 할 약속이다. 한국이 그곳에서 배워야 할 것은 완벽한 통합이 아닌 불완전함을 건디는 정치적 인내다.

유럽의 결정적 오판과 교훈

그러나 유럽은 결정적인 오판을 했다. 제도가 모든 위험을 막아주고, 경제 통합은 복지국가와 병립 가능하며, 안보는 미국이 대신해 줄 것이라 믿었다. 냉전 종식 후 직접적 위협은 사라졌다고 판단했고, 러시아와의 무역이 평화를 지탱할 것이라 착각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신화를 무너뜨렸다.

공존의 가장 기본적 출발은 생존이며, 생존은 스스로를 지킬 힘에서 온



이재명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여섯째)이 지난 1일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앞줄 왼쪽에서 다섯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앞줄 왼쪽에서 여덟째) 등 각국 정상들과 전통 한복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다. 역지력 없는 공존은 환상이고, 선의에 기댄 공존은 위험하다. 그 냉엄한 깨달음이 유럽을 다시 공동 방위와 에너지 자립의 길로 돌려놓았다.

외교에서 감정은 순간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되지 않는다. 원칙은 지루하지만 존속한다. 유럽 통합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감정이 아닌 제도적 설계 덕분이었다. 실제로 장 모네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워싱턴과의 신뢰 네트워크였다. 그는 유럽의 공존 실험을 미국의 전략 질서와 정교하게 연결시켰다.

변화한 세계와 공존의 조건

오늘의 한국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새로운 질서를 위한 대화의 창은 열리고 있지만, 국제 환경은 점점 더 분절화된 구도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변했다. ‘트럼프즘(Trumpism)’은 일시적 현상이 미국 정치의 새로운 DNA가 되었다. 동맹의 비용은 거래적이 되고, 공공재로서의 미국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중국도 변했다. 시진핑의 꼭두인 입술 속에는 정치적 수사로는 녹이지 못할 갈등이 숨어 있지만, 새로운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남기고 있다. 과학기술력과 핵심 광물의 공급망은 군사력에 못지않은 무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중·러 협력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려는 여전히 냉엄하다. 그 한편에서 서구의 분열과 쇠퇴의 틈을 타고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다. 이 변곡점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이들과 공존할 것인가?

공존은 철학이 아니라 행동의 양식

이다. 한국이 지속가능한 공존을 설계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갈등이 있더라도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목표는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조건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둘째, 정치의 절제와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외교를 국내 정치의 무대로 소비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성과를 과장하지 않고 조용한 성과를 축적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공존은 외교전략이기 전에 사회의 문화다. 서로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내부의 연습이 있어야 외부와의 협력도 가능하다.

공존은 단순한 외교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지향의 문제다. 한국은 ‘변화의 수용자’에서 ‘질서의 조정자’로, 지역의 중견국에서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에는 실용의 전략만으로 부족하다. 원칙이 없는 실용은 기회주의로 흐른다. 그러면 한국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많은 외교 자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보편성과 공동선이라는 가치를 제시할 때 한국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신뢰를 얻는다.

흔들리는 지정학의 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목소리의 과잉이다. 상충되는 이해 구도 속에서 작은 성과를 크게 포장하거나 국내 정치용 이벤트로 외교를 소비하는 관행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

특히 북·중·러와 관계개선의 여러 시도들은 상당 부분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적합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많다. 지금은 소리 없이 움직일 때다.

조용한 용기, 실용의 새 이름

목소리를 줄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인내이며, 그 인내가 공존과 실용의 교의 진정한 조건이다. “지금은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마도 한국에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한 유럽 전문가의 냉철한 지적이다. 그의 말처럼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목소리보다 인내다. 대화·절제·합의의 세 축이 함께 움직일 때 공존은 지속된다. 외교는 대화의 예술이지만 동시에 인내의 정치다.

과거의 한국 외교는 종종 성급했다. 빨리 보여주고 싶어했고, 상대방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보여주기 위해 움직였다. 그래서 공존의 언어가 독백처럼 들릴 때가 많았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공존의 논리는 조용한 행동,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실행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국가와 진영 간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사람을 엮는’ 공존을 모색할 시기다. 사람의 연결이란 단 위에서 바라보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많다. 정치적 박수보다 현실의 진전을 선택할 때 안팎에서 신뢰받는 공존을 만들 수 있다.

장 모네의 농가에서 시작된 공존의 발상과 마스트리흐트의 조약으로 완성된 유럽 통합의 약속은 모두 ‘불완전함을 건디는 힘’을 말한다. 공존을 위해서는 대화를 유지하고, 절제를 지키며, 사회적 합의를 축적해야 한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강한 역지력을 유지해야 한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38 816 960 962" data-label="Complex-Block">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우리말 바꾸기

‘드려야’ vs ‘들여야’

‘받아드리다, 벌어드리다, 거둬드리다, 불러드리다, 잡아드리다’ 등은 바른 표기일까? 요즘 와서 이런 식의 표기가 부쩍 눈에 많이 뜨인다. ‘드리다’가 ‘주다’의 존칭 또는 존대 표현이라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선물을 드렸다’ ‘말씀을 드렸다’ 등이 이러한 예다.

‘드리다’는 명사와 결합해 동사를 만들기도 한다. 이때도 ‘드리다’는 공손의 뜻을 더한다. ‘말씀드리다’ ‘불공드리다’가 이런 유형이다. 이처럼 ‘드리다’가 존대나 공손을 나타낼 때는 표기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문제는 ‘들이다’가 쓰일 자리에 ‘드리다’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존칭 ‘드리다’에 익숙하다 보니 발음이 같은 ‘들이다’도 무의식적으로 ‘드리다’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두에 나열한 단어들이 모두 ‘들이다’ 자리에 ‘드리다’를 쓴 것이다. 대체로 ‘들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손님을 안으로 들였다’에서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뜻을 가진 ‘들이다’가 쓰였다.

‘받아들이다, 벌어들이다’ 등에 포함된 ‘들이다’ 역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들이다’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알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오리건 살이

아스토리아로 가는 길



이유 권
회계사

게 늘어난 듯하다. 덕분에 일거리는 많아졌고 한국 방문 횟수도 잦아졌으며, 이제는 한국과 미국에 내 몸이 하나씩 있거나, 아니면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다행히 AI는 매일 발전하며 내 일을 도와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발이마저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도 이녀석을 떼어놓고는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역사와는 달리, 우리는 더 이상 어른들의 지혜에 기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부모님이 겪어온 인생의 통찰을 가지고 급변하는 세상 속 변화를 따라가려 해도, 선구자들은 너무 멀리 앞서 있고 나는 이 길을 좇기엔 이미 늦은 듯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옛말도 이제는 어딘가 현실과 어긋난다. 늦었으면 그냥 늦은 것일지도 모른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가지면 된다는 순진한 믿음조차 앞으로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아마 내년이면 AI는 사람 수준의 대화를 수행할

것이고, 거리에선 주문을 받고 서빙하는 로봇이 단순 노동을 대체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 겁이 나고, 이 시대의 소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

새벽에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시차에 적응 안 된 몸을 새벽에 깨워 생각을 이어본다. 내 몸은 돌이 되어 동시에 다른 대륙에 존재할 수 없고, 지나간 어제의 시간에도 간섭할 수 없다. 인간은 애초에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다.

일거리를 잠시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브런치를 먹으러 나와보니, 한국에 가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오리건의 가을이 늦은 인사를 건넨다. 파란 하늘 아래 빨강고 노란 단풍들, 이끼와 어우러진 녹갈색 나무들은 청량한 가을 공기와 함께 답답한 나의 물음에 조용히 답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레, 일단 내 할 일에 충실하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다 보면, 내 일은 그 나름의 해답을 보여줄지 모른다.

AI의 등장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고, 심지어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의 삶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문득 떠오른 말이 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스토리아의 강물이 태평양으로 흘러가듯, 우리의 하루하루도 두려움을 건너 희망으로 이어진다.

열린광장

함께였다, 함께한다, 함께할 것이다



이재 학
LA 6.25 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

새겨야 한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세월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을 늘 시험에 들었다. 하지만 이날 전우들의 만남은 과거의 전투가 남긴 상흔을 넘어, 미래를 향한 연대로 전환되는 상징이다. 이 우정이야말로 서해·동해의 바다와 태평양을 넘어 양국 국민과 병사들의 심장을 연결하는 등불이 된다.

행사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현실 속에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규모나 시설이 아니라 예약된 약속, 전우가 전우를 지키는 거룩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우들이 있었기에 ‘지키는 힘’은 생겼고, 지금은 그 위력이 동맹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그 힘은 바로 한국과 미국 시민이 함께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다. 실제로 한미동맹은 단순히 군사적인 협력 관계가 아닌, 미래지향적이며 상호 신뢰에 기초한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논평도 있다.

전국적인 향군의 날을 앞두고 지역 향군 단체들이 준비하는 전우 초청 행사에 참가할 우리 한국전 참전유공자들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 6.25참전 노병들은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현재진행형 동반자다. 우리가 이들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할 때, 그 감사는 과거로 멈추지 않고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 그 다리를 통해 한미 양국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피의 연결이라는 사실을 맞출 수 있다.

전우의 손을 잡고 나누는 한마디가 얼마나 묵직한가를 오늘 다시 생각해 본다. “함께였다”는 기억이 “함께한다”는 현실이 되고, 그것이 “함께할 것이다”는 신념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동맹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종교는 세상을 초월하는 진리를 추구한다. 하지만 '지상의 종교'는 번잡한 속세와 떨어져 존립할 수 없다. 종교도 사회와 교류하며 다양한 얼굴을 내보인다. 한국의 종교는 특히 그렇다. 격동의 현대사와 맞물리며 시대의 굴곡과 함께해 왔다.

해방 후 한국 사회에는 격랑이 몰아쳤다. 한국의 종교도 무풍지대가 아니었다. 크게는 산업화의 그늘을 어루만지고 민주화의 열망을 끌어안았다. 때론 정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종교 국가다. 오랜 불교 문화권에 조선 후기 기독교가 유입되고, 개화기 민족종교도 일어나면서 '종교박물관' 양상마저 띠었다. 반면에 종교 간 분쟁이나 갈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2024년 현재 한국 종교 인구(한국리서치 조사)는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다.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51%였다.

해방 직후 한국의 종교는 '미약하다'는 표현이 어울렸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학계에서는 당시 전체 종교 신자가 인구의 10%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절반 가까이 종교를 가진 요즘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종교인을 투옥하는 등 탄압했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의 종교가 쇠��했다.

해방 정국과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아우르는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했다.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대거 월남했다.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 개신교도 약 20만 명 중 7만~1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이들의 종교 활동을 뒷받침하며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려 했다. 미 군정은 또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자연스레 기독교 계열 인사들이 다수 군정에 참여하게 됐다.

크리스마스 이어 석탄일 공휴일 지정

불교도가 기독교도보다 많았던 1949년에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도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쟁 중이던 51년에 '군중제도'를 도입해 군대 안에 목사님과 신부를 두고 종교 활동을 하게 했다. 군인 중 기독교인 비율은 군중 제도를 도입한 51년 5%에서 5년 뒤 15%로 늘었다(강돈구, 『미 군정의 종교정책』).

불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석가탄신일이 휴일이 되고 군중 제도를 도입한 것은 박정희 정부 들어서였다. 기독교는 전후 복구를 위한 원조 물자와 교육·의료기관 운영에도 적극적이었다.

이 시기 불교는 혼란과 갈등을 겪었



산업화·민주화 진통 달랬다 경쟁·속도 사회의 안식처



1960~80년대 한국 종교는 지친 시민을 포근히 품었다. 1 89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때 서울 여의도를 메운 교인들. 2 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전도 집회에는 5일간 320만 명이 모였다. 3 시대의 어른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이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다. 불씨는 일제가 뿌렸다. 한국 불교를 왜색으로 바꾸려 했다. 친일 성향의 주지를 임명하고, 승려의 결혼을 장려해 대처승을 늘렸다. 광복 후 한국 불교는 두 쪽으로 갈렸다. 결혼한 대처승과 독신 비구승의 싸움이였다. 한국 불교 전통을 회복하려는 비구승과 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대처승이 충돌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찰 마당에 아기 기저귀가 널린 것을 보고 놀라 "이게 뭐냐"고 물었다는 일화도 있다. 일본처럼 대처승이 많다는 답을 들은 이승만은 54년부터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불교정화'를 내용으로 한 유시(諭示·국민에게 당부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처자식을 거느린 사람들은 승려가 아니므로 사찰에서 물러나라'는 문구까지 있었다. 이후 한국 불교는 비구승 중심의 조계종이 주도권을 잡았다. 70년에는 조계종과 태고종(대처승)으로 종단이 아예 나뉘었다.

박정희·전두환 정부 때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종교 성장의 자양분이 됐다. 60년대 산업화 정책으로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에 유입됐다. 이주민들은 생

존 경쟁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빈부 격차는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켰다. 송재룡(종교사회학) 경희대 특임교수는 "박탈감을 해소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자원을 교회가 제공했다"며 "일종의 피난처이자 공동체적 역할을 수행하며 교회가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개신교는 또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장에 뛰어들어 '도시산업 선교' 활동을 펼쳤다.

개신교 신도 수는 60년대 초반 74만 명에서 80년 718만 명으로, 같은 기간 교회 수는 6800개에서 2만1200개로 급증했다(윤승용, 『현대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 시간이 좀 더 흐른 90년대 초반,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인 수가 70만 명에 달해 '세계 최대 단일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였다.

천주교는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 운동을 전개했다. 민주화 운동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그 복판에 '시대의 어른'으로 추앙받은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다. 87년 6월 항쟁 때 서울 명동성당으로 시위대를 쫓아온 경찰들을 "나

를 밟고 가라"며 막아섰다.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됐다. 지금도 "한국 천주교는 김수환 추기경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호국 전통을 지닌 불교 역시 민주화 대열에 동참했다. 80년 '서울의 봄'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전두환 지지 성명에 반대하고 5·18 광주 현장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신군부는 그해 10월 27일 군경 합동 병력 3만2000여 명을 투입해 승려를 연행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했다. 이른바 '10·27 법난'이다. 당시 고초를 겪은 이들이 1929명에 달한다.

기독교의 성장은 대형집회에서도 확인됐다. 73년 5월 30일부터 닷새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목사 전도 집회에는 총 320만 명, 마지막 날 당일에만 110만 명이 운집했다. 84년과 89년 두 차례에 걸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한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한국 천주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2027년에는 교황 레오 14세가 방한할 예정이다.

불교는 극심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로 유명한 성철 스님과 베스트셀러 수필집 『무소유』를 집필한 법정 스님 등이 불교 중흥에 기여했다. 2000년대 이후 명상에도 집중하며 현대인의 '마음공부'를 돕고 있다.

원불교, 교육·환경·복지 활발한 활동

1916년 소태산 대종사 박종빈이 설립한 원불교도 한국 4대 종교로 꼽히게 됐다. 51년 원광대를 설립하고, 보육원·양로원·병원 등을 운영했으며, 민주화 시기에는 환경·여성·장애인 운동을 통해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

종교 성장의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종교의 대형화·세속화가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교회 세습·승계 과정의 불탄, 물질주의를 앞세운 기복신앙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됐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신도 수에 따라 교회와 사찰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내 종교는 해방 후 2000년대까지 약 60년간 성장세를 유지했다. 속도에 지친 한국인에게 안식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종교인은 조금씩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전 국민의 53.1%였던 종교인 비중은 2015년 43.9%로 떨어졌다. 교단·종단의 성직자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탈종교화 흐름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윈화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약화하는 요소다.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세속 정치에 집착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극단적 행태 역시 종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종교의 의미는 여전히 있다. 현대인, 특히 젊은 세대들이 물질에 빠져 종교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명상이나 묵상 같은 영성 활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무한한 존재에 대한 희구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일 수 있다. 인공지능(AI)의 대습격 앞에 선 현대인의 불안 또한 향후 주요한 이슈로 예상된다.

현실적인 과제도 있다. 한국 종교와 정치의 명확한 정체성 찾기다.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교분리(政教分離) 원칙을 명시했다. 48년 제헌헌법 때부터 내려오는 조항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늘 혼란스러웠다. 정치는 종교를 활용해 지지기반을 확보하려 했고, 일부 종교인은 정치와 손잡고 세를 불렀다.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지 않고,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는 말마저 나왔다. 이념과 진영 대립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통합과 이해'라는 종교의 기본 정신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백성호 종교전문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시 설

코스피 ‘불장’에 변동성도 급증…‘빚투’ 관리 나서야

한국 증시가 뜨겁다. 올해 들어 코스피(KOSPI)는 70% 넘게 상승하며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반도체 산업 호황의 효과가 크다. 하지만 이 ‘불장’(강세장)의 이면에는 불안한 조짐이 도사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어제 “한국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매수가 급증하며 변동성 베팅이 급증하고 있다”고 비상벨을 울렸다. 실제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는 44까지 치솟았다. 안정적이라 여겨지는 10~20 수준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시장이 예민하게 출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 예약금은 88조원, 신용융자는 26조원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다.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30% 수준이다. 아직 위험론은 아니

라는 분석도 있지만,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급증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인물 마이클 버리도 “빅테크가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며 AI 발 거품론을 제기했다. 글로벌 조정이 닥치면 한국 증시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에도 정부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주가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를 늘리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최근 늘어나는 빚투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레버리지를 쓰는 것”이라고 한 것도 우려스러운 발언이었다.

정부, 비준 절차 대신 특별법 추진 논란
국회 논의 통해 내용 투명성 확보해야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포모(FOMO)’ 심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빚투 자체를 당부해야 할 때다. 책임 있는 당국이라면 ‘빚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 우선 사실상 증권사 자율에 맡겨진 신용융자 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등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는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또한 투자자 경고 시스템을 강화해 과열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좋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는 ‘정책 랠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1980년대 말 증시 대폭락은 ‘소 팔고 논 팔아 주식 투자’하던 빚투가 충격을 키

었다. 당시 코스피지수는 1985년 말 164에서 불과 3년 만에 900을 돌파하며 500% 넘게 치솟았지만, 3차 호황 붕괴와 함께 600선으로 폭락했다. 증시 호황에 따른 ‘묻지마 투자’가 거품을 키운 결과였다. 지금 상황도 닮은 점이 있다. 유동성 과잉, 빚투 확산, 정부의 지표 집착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빚투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고 급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체력 강화로 구조적 강세장을 만드는 전략이 절실하다. 부동산에 쏠린 시중 자금을 증시로 흐르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검사 반발을 ‘친윤 항명’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억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친윤석열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몰아가며 반격을 시도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정 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게 “겉먹은 개”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검찰 전체를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이 가장 의문을 갖는 대목은 누가 어떤 판단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지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의 개입 또는 외압은 없었는지도 관심사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게서 7000억원 넘는 범죄 수익을 거둬들일 기회를 사실상 상실한 점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고 했지만, 형사재판에서 포기한 범죄 수익 추징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발상은 상식적

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 닷새 만인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일선 검사들에 이어 주요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간부들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노 대행으로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 대행이 혼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노 대행은 지난 7일 저녁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에서 이 차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고 언급했다. 노 대행의 사퇴와는 별도로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밝혀야 하는 숙제는 그대로 남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친윤계 검사’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건 터무니없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모두 친윤계이고 내란 세력이란 말인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조직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격앙된 상황이라고 전하며 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수사 외압 폭로로 징계까지 받았을 정도로 친윤계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수 단체는 물론이고 진보 성향 단체에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선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3%짜리 한국의 환경 과대망상

김정하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가상의 사례다. 남해의 어떤 섬마을이 자체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이 되겠다며 ‘플라스틱 제로’를 선언했다.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을 전부 퇴출했고, 생분해성 어망 도입을 의무화했다. 하루 2t 남짓 하던 쓰레기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 관광객들이 “생수 한 병 사마실 수 없다”며 발길을 끊었고, 친환경 어망은 기존 제품보다 서너 배가 비싼 데다 잘 찢어졌다. 결국 마을 경제는 무너졌고, 주민들이 타지로 떠나면서 섬은 황폐해졌다. 그래도 앞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여전했다.

정작 플라스틱 문제의 열쇠를 쥔 대도시와 거대 기업은 소극적인데, 환경 영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섬마을이 도덕적 이상에 매달리다 자멸한 셈이다.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판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50~60%’ 53~60% 감축안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됐다. 정부 안이 미진하다는 환경단체의 입김이 반영됐다. 이미 하한선을 48%로 제시했던 산업계는 오히려 기존 안보다 높아진 NDC 목표에 망연자실이다.

당장 자동차업계는 2035년계부터 내연기관 판매가 사실상 중단돼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유·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탄소배출권 구매를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업종은 가뜰이나 국제경쟁력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추가비용은 재앙이다.

발전업계도 매년 수조원대의 탄소 비용을 떠안아야 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전력 소비가 막대한 AI 분야에 치명상이 될 전망이다.

혹시 한국이 지구 온난화 해결에 핵심적 기여를 할 국가라면 이런 고통과 피해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6억8200만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로 세계 10위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1.3%다. 그런데 1위인 중국은 무려 145억7760만 CO2EQ로 전 세계 배출의 27.4%나 된다. 2위는 미국(53억7980만 CO2EQ)으로 10.1%를 차지하며 3위는 인도(35억190만 CO2EQ) 6.6%, 4위는 러시아(22억3370만 CO2EQ) 4.2%의 순서다. 이들 4개국이 세계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을 배출한다.

1.3%짜리 한국이 아무리 희생해봤자 이들 4개국이, 특히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쯔쯔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2035년까지 고점 대비 7~10%를 감축하겠다는 미미한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아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약에서 탈퇴해버렸다.

온실가스 주범 중·미 감축 미적대
배출량 미미한 한국만 자해적 규제
도덕적 이상 매달리다 자멸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를 ‘세계 역사상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인도는 빈곤 탈출이 기후위기 해결보다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전쟁 중인 러시아에 온실가스는 한가한 얘기다. 다들 자기 익숙한 쟁길 뿐 앞장서서 희생할 생각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NDC에 대해 “일부 고통이 따라도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DC는 해당 국가가 자율 결정하는 것이며 수위가 낮다고 국제 제재를 당하는 사안도 아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길이다.

한국도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온실가스는 기본적으로 중국·미국 등의 대형 배출국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미적대는데 한국만 도덕 선진국 코스프레를 하며 자해적 규제에 열심이다. 그래 봐야 아무 실효도 없는데 말이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전담제작·배부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게이트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Xray / CT / MRI 리퍼럴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면역력 강화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항산화
- 심혈관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소를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세라젬!! 디자인 OK 성능도 OK 기쁨 더~더욱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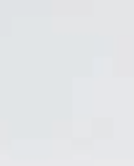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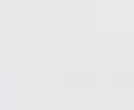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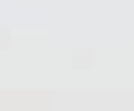


세라젬

CERAGEM V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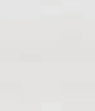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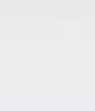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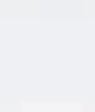
일상 회복의 새로운 기준

세라젬의 시그니처 척추支撐帶 기술을 적용한 제품



3가지 컬러 옵션으로 만족하세요
당신의 몸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0000

● 컬러

● PMS 6670

CERAGEM V7

최신 3D인쇄 기술로 제작된 의자

우아함과 힐링의 만남

최신 3D인쇄 기술로 제작된 의자

최신 3D인쇄 기술로 제작된 의자

최신 3D인쇄 기술로 제작된 의자

스파한 스킨

스파한 스킨은 피부에 자극이 없는 부드러운 스킨을 제공합니다.

목-어깨-목화힐링 마사지

목-어깨-목화힐링 마사지는 목과 어깨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온열 케어

온열 케어는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미국 FDA 인증 2등급 의료기기

미국 FDA 인증 2등급 의료기기

미국 FDA 인증 2등급 의료기기

미국 FDA 인증 2등급 의료기기

사파 마사지 힐 - 힐링 안락

사파 마사지 힐 - 힐링 안락은 힐링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공간을 품격 있게 완성하세요

당신의 공간을 품격 있게 완성하세요

당신의 공간을 품격 있게 완성하세요

당신의 공간을 품격 있게 완성하세요

문의: 02-1234-5678

www.ceragem.com

[illegible]

STEAMBOY

스팀보이 카본 온수메트

**SPECIAL
OFFER**

싱글

~~\$340~~

\$300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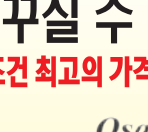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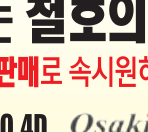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특가 세일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호표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호표 홈데스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키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호표홈데스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1,499~~ **\$999** +tax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

절찬리 판매중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기기를 채우고 피로를 푸세요~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MART

OUR LOWEST PRICE!

NOV. 13TH - NOV. 20TH, 2025



SPECIAL
GIFT BOX



FREE

Free Gift: Tote Bag



Black Bean Soymilk
베지밀 검은콩두유 **LIMIT 2**
6.4 FL OZ X 24 EA/SPECIAL GIFT BOX

\$13.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MART

VIRGINIA

- | | |
|--------------|--|
| FAIRFAX |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 ANNANDALE |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 CENTREVILLE |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 FALLS CHURCH |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 MANASSAS |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 BURKE |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 HERNDON |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

MARYLAND

- | | |
|--------------|--|
| CATONSVILLE |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 GAITHERSBURG |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 WHEATON |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 FREDERICK |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 ELLCOTT CITY |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에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November 13, 2025 C

냉·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주택 회전율, 30년 만의 최저 수준

직장 이동이나 가족 변화, 은퇴 등 생활상의 이유로 매매하는 주택 수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분석업체 레드핀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 주택 중 투자용이 아닌 실수요에 의한 거래 비율은 1000채당 약 28채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주택 회전율을 기록했다.

이 지표는 일정 기간 실수요로 거래된 주택 수를 매매 가능한 전체 기존 주택 수와 비교한 수치로 주택 소유자들이 같은 집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는지를 단순 거래량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레드핀의 대릴 페어웨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사람들이 집을 옮기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신호"라며 "이는 주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된 노동시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9개월간 주택 회전율은 2012~2022년 같은 기간의 평균 대비 약 30% 낮은 수준이다. 전통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나 결혼과 출산에 따른 공간 확대 등으로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이런 경제적, 사회적 동기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페어웨더 이코노미스트는 "사람들이 집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일자리 이동성도 낮아졌다는 뜻"이라며 "현재 노동시장은 낮은 채용과 해고로 정체돼 있고 주택시장도 이와 흐름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신규 고용은 2만2000건으로 7월의 7만9000건에서 급감했고 시장 예상치 8만 건에 크게 못 미쳤다. 연방 정부의 섣다른 여파로 9월 공식 고용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



직장 이동이나 은퇴 등 생활상의 이유로 매매하는 주택 수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 둔화가 주택 매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실수요 거래 1000채당 28채 정체된 노동시장 반영 해석 '이사 안 하는 사회' 고착 우려

으나 급여관리업체 ADP의 조사에서는 민간 부문 일자리가 3만2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GM, 아마존, 타깃 등 대형 기업들의 감원 발표가 이어지면서 경기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 둔화가 주택 거래 위축을 심화하는 악순환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주택 회전율 하락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팬데믹 시기 기록적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거나 재융자한 주택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현재의 높

은 모기지 금리를 감당하며 새 집을 사는 것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이사 대신 버티기를 택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2022년부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팬데믹 초기의 주택 매입 열풍은 급격히 식었다. 기존 주택 판매량은 지난해 거의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금리가 완화되면서 지난달 거래 속도는 2월 이후 가장 빠른 수준으로 소폭 반등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이번 주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집을 구매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다.

회계법인 KPMG 분석에 따르면, 현

재 주택 소유주의 약 70%는 모기지 금리가 5% 이하다. 이들 중 급한 이유가 없는 셀러는 판매 가격을 지키면서 관망 상태에 머물러 있다. 매물을 내놨다가 거둬들이는 디리스팅이 급증하는 이유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디리스팅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했다. 특히 8월에는 증가율이 72%에 달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여름철에 가장 활발하고 겨울로 갈수록 매물이 줄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가을철 디리스팅이 폭증했다. 8월 기준 새 매물 100건당 철회된 매물은 28건으로 지난 해의 16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월에는 매물 철회율이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안유희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2025 Ebenezer Year End Single party
한국과 미국 전역의 싱글들을 위한 연말 파티에 200명 초대 합니다.
품질만 상품 및 1000불 상금
12월 6일 토요일 6시 Pine Plaza
7 Broad Ave 4th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부동산 학교

수업료: \$350 (교재비: \$100) 선착순 할인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산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구매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버지니아

2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며진 집, 벽돌, 마루바닥

3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교,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4

\$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메릴랜드

1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2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DC

1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2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월급 높아도 내집 마련 불가능… 시급 70불 돼야

평균 시급 41.09불…전국 4위
중간 주택 가격은 74만368불
주당 23시간 더 일해야 ‘내 집’

가주의 임금 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임에도 주택 구매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주별 평균 시급 자료에 따르면, 가주의 평균 시급은 지난 8월 41.09달러로 전국에서 4위 수준이었다. 가주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3.2시간으로, 이를 연단위로 환산 시 6만5481.12달러다. <표 참조>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인 30% 기준 이 소득으로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43만5157달러였다. 다운페이먼트는 20%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실제 집계된 가주의 중간 집값은 74만368달러로, 해당

시급보다 70.1%를 더 벌어야 구매 가능했다.

이는 시간당 28.76달러 더 많은 69.85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의미로, 연봉으로 치면 11만1312달러에 달한다. 평균 시급으로는 주당 23.2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임금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주택 구매 여건이 나쁜 편이었다.

전국 2위 워싱턴주의 경우 평균 시급이 42.30달러로, 63만9975달러의 중간 가격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급여가 42.9% 부족했다. 3위 매사추세츠주도 임금이 시간당 41.74달러였지만, 74만9450달러의 주택 구매를 위해선 소득이 69.5% 더 많아야 했다.

부동산 분석업체 클레버 오피스의 벤 미즈 공동창업자는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기지 자격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돼 집값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가주 임금이 전국 4위임에도 주택 구매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의 한 음식점에 내걸린 구인 안내문. 박낙희 기자

즉,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는 지역 소득 수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임금이 낮은 지역은 구매 가능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예외로 급여 수준이 1위인 워싱턴DC는 시급이 54.23달러였지만 집값이 58만4975달러로 1.9% 부족에 그쳤다.

미네소타 또한 높은 평균 임금과 함

께 주택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39.53달러의 시급으로 주택 구매 시 9.2% 여유가 있었다.

부동산 플랫폼 렌트투온랩스의 창립자 마틴 오레피스 창립자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낮아진다”며 “이 때문에 일부 고소득층조차 임대료에 머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간당 평균 급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미시시피의 경우 28.10달러였지만, 주택 중간 가격이 29만9000달러로 0.5%만 더 벌면 충분했다.

다만 뉴멕시코는 시급이 29.14달러였으나, 집값은 높게 형성돼 29.6% 부족했다. 반대로 아칸소는 평균 시급 29.62달러로도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최소 소득보다 2.5% 많았다. 우훈식 기자

작은 지출 무시하면 낭패



주택 보유 은퇴자 주의 사항

초기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
유지비·의료비·공과금 등 합정
실제 고정비용 검토·계획해야

은퇴를 맞아 직장을 떠나더라도, 돈 관리만큼은 여전히 ‘풀타임 업무’에 가깝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초기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신규 은퇴자들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흔히 저지르는 다섯 가지 지출 실수를 경고했다.

부동산 중개인이자 투자자인 론 마이어스는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서 지출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유지·보수비는 꾸준히 발생하고, 고정수입자에게는 그 충격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간과하기 쉬운 주요 사항들을 점검해본다.

①주택 유지·보수비 과소평가

집도 노후를 맞이한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연 2~3%를 유지비로 따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조언한다. 지붕 누수, 배관 문제, 에어컨 고장 등은 예고 없이 발생하며 은퇴자의 생활비를 크게 흔든다.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인 채드 커밍스는 “유지비는 은퇴자의 예산을 잡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라며 “이 부

분을 대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②‘라이프스타일 업그레이드’

집 리모델링, 세컨드 하우스 구입, 장기 여행 등 ‘보상 소비’가 대표적 함정이다. 마이어스는 “은퇴 직후의 해방감에 리모델링이나 여행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계획 없는 지출은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시킨다”고 지적했다.

커밍스는 “8만 달러짜리 주방 리모델링이나 해외여행이 ‘6개월의 즐거움’ 대신 ‘10년의 불안’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돈으로 월 300달러씩 평생 받을 수도 있었다”며 “은퇴 후 절제된 소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③의료비·건강보험 인플레이션

은퇴 후 충격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의료비 증가’다. 일반적으로는 ‘건강하면 괜찮겠지’라며 단순하게 생각하다 당황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한다.

커밍스는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메디케어 보험료 외에도 치과·청력·처방약 비용의 상승은 이미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 6~10%의 의료 인플레이션을 가정한 예산 편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노스웨스턴뮤추얼의 재정설계사 해리스 헌터는 “건강저축계

좌(HSA)를 활용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④은퇴자금 과도한 인출

너무 빨리 자금을 인출하려는 시니어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퇴직금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지나치게 빨리 인출하면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고갈된다”며 “연간 인출률을 3~4%로 제한해야 30년 은퇴 기간을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4% 규칙’이라 불리는 고전적인 재정 원칙으로, 시장 변동에도 장기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⑤재산세·보험료·공공요금 상승

많은 은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폭등하는 각종 고정비를 간과한다. 마이어스는 “플로리다처럼 재산세와 주택보험이 매년 오르는 지역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폭풍 피해 이후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55세 이상 커뮤니티의 단지 관리비(HOA)도 꾸준히 상승하며, 전기·수도·가스요금 역시 불안정하다.

은퇴자금·세금·의료비·주택관리비 등 모든 고정지출을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설계해야 노후의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은퇴 전문가들 조언의 핵심이다.

최인성 기자

가장 하기 싫은 집안일은…

성인 44% 기피 대상 ‘오븐 청소’ 일산화탄소 및 화재 발생 위험

밀린 집안일을 처리할 기피인 휴일,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집안일은 오븐 청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 업체 노웍스(Norwex)가 최근 북미 소비자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집안일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꺼리는 것은 오븐 청소(44%)였다. 그 뒤를 이어 샤워실 청소(39%), 창문 닦기(38%), 변기 청소(32%), 걸레질·진공청소(23%) 순이었다.

특히 전체의 10명 중 7명꼴인 71% 집안일을 한 달 이상 미루고 있다고 답했으며, 37%는 차라리 세금 신고나 차량 오일 교환을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집안일을 미루는 이유로는 ‘내일로 미루는 게 습관화됐다’(35%)가 가장 많았고, 이어 ‘너무 피곤하다’(26%), ‘시간이 없다’(15%), ‘지루하다’(12%)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Z세대의 18%가 ‘SNS

동영상 촬영을 위해’ 청소한다고 답했지만, 밀레니얼 세대·X세대·베이비붐 세대는 손님 방문 전 청소가 이유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븐 청소를 미루는 것은 주택 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C화재예방사 공동 창립자인 폴 크리스토퍼는 “기름때가 쌓이면 열에 의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다”며 “또한 가스 오븐의 경우 버너가 막히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곰팡이나 연기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자극도 문제로 꼽혔다.

전기시공업체 프로일렉트리컬의 다니엘 바실렘스키 대표는 “조리 후 가볍게 닦아주고, 3~6개월마다 대청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오븐의 자가 세정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극도의 고온으로 작동하는 탓에 부품 손상이나 연기 발생 우려가 있다며 정기적인 손 청소와 자가 세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GALAXY REALTY

★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울거울/내년 봄에 파던 나폴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높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10월 ~ 내년 1월
임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7608 Lee Landing Dr, Falls Church, VA

NEW

1+1년
RENTED

\$2,600 가격 넘치는 세입자 연결

2901 Gettysburg Sq, Vienna, VA

NEW

2년
RENTED

주재원 지난 6년간 세입자도 로리 손님. 이번에도
마켓에 내 놓지 않고 바로 연결 + 렌트 완료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RENTED

2년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RENTED

3년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RENTED

1년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 안 주는데,
주인측 에이전트를 잘 아는 사람이랑 만났음.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RENTED

3년

주재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4010 Tanners House Way, Centerville, VA

RENTED

3년

주재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주매매 및 렌트

8110 Squiggle Drive, Springfield, VA

COMING SOON

\$625,000

방 3, 최2+2, Main Level 풀집 중은 마루, 1+2층 데크, Cul-de-Sac 으로 어린이들이 놀기에 안전. 데크 뒤로 숲 View, 그 숲 안에 산책로 있음. 10/11/2025, 1:00 ~ 4:00 PM 오픈하우스, 10/9 마켓에 올릴 예정

NEW

14777 Hampton, McLean, VA

UNDER CONTRACT

\$1.3M

복수 오피스 빌딩. 제일 좋은 조건의 오피스로 결정.
마켓에 올린 후 4일 안에 계약 완료, 10/24 세들먼트 예정

6501 Divine St, McLean, VA

SALE

\$2.85M

Focal Point Homes 빌다가 지은 4년 된 집, 주인의 사랑과 잘 관리된 집.
방 7, 최 6.5, 완전 대비 제너레이터 있음.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8220 Crestwood, McLean, VA

UNDER CONTRACT

\$1,225,000

마켓에 올라오자마자 3일 안에 계약 완료,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위 1477 Hampton Hill 셀러가 소개, 10/14일 세들먼트 예정

2726 Gallows Rd, Vienna, VA

SOLD

\$279,900

오픈하우스 때 온 손님을 바이어로 만들, 셀러/바이어 So Happy,
계약 후 2 주 안에 세들먼트 완료, 9/30 세들먼트 완료

NEW

사업체 매매

델라리스(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대표번호: 562-896-3400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erville, VA 20121

부유층일수록 보장소득 상품 유리

수익률 8.5%의 비밀

보장된 평생 소득(FIA with income rider)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일각에서는 부자들의 경우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반응한다. 실제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은퇴기간 중 생활비가 모자랄 가능성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말이다. 자산이 많으면 은퇴 후 필요한 소득도 그 안에서 충분히 인출할 수 있고, 혹시 시장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런 믿음도 ‘가정에 불과한 낙관론’일 수 있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부유층일수록 오히려 보장 소득 상품이 더 강력한 자산 증식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유층 은퇴 설계: 완벽한가?

예를 들어 보자. 은퇴를 앞둔 60세 부부. 65세에 은퇴 예정이며 각각 100만 달러의 브로커리지 계좌와 IRA, 그리고 75만 달러의 401(k)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은퇴 후 연간 생활비는 약 20만 달러이고 두 사람의 소셜 연금 수령액을 합하면 약 8만달러. 부족한 12만달러는 자산에서 인출해야 한다.

자산 총액은 275만달러다. 충분히 보인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연 7%의 순수익률을 가정해 65세까지 운용하고, 은퇴 이후에는 5.5% 순수익률로 낮춰 계산한다. 인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자산운용을 전제로 하는 탓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순수익률 기준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공격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여전히 공격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어쨌든 이 가정하에서는 89세 시점에 잔여 자산이 436만달러로 상당히 풍족하다.

그런데 은퇴 직전 해에 시장이 -40% 하락하고, 이후 2년 연속 +20%

씩 반등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놀랍게도 이 부부는 89세에 자산이 고갈된다. 단 한 해의 충격이 그들의 은퇴 시나리오를 무너뜨린 것이다.

▶수익률 8.5%: 베네팢 베이스의 위력 이번에는 같은 시나리오에서 단 하나의 변수만 바꿔보자. 바로 75만 달러의 IRA 자산 전액을 조인트라이프 수명 보장형 FIA 상품에 할당한 것이다. 이 상품은 10년간 8.5% 복리로 증가하는 베네팢 베이스를 제공하며 이후 소득은 이 증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시장이 아무런 손실 없이 순조롭게 움직였을 때 자산 총액은 436만달러보다 큰 530만달러로 오히려 더 증가했다. 왜일까? 간단하다. 일반 자산은 5.5% 수익률을 거두는 반면, 이 FIA 상품은 베네팢 베이스 기준으로 8.5% 복리로 자란다.

여기에 소득 인출도 더 높은 기준액에서 계산되므로 자산 인출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산이 쌓이게 된다. 더 놀라운 결과는 충격 시나리오에서 나타난다. 시장 손실이 -40% 발생했을 때 기존 구조에서는 89세에 자산이 0이 되었지만 FIA를 도입한 구조에서는 265만달러가 남았다.

▶안정성이 성장성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부자들이 공격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원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 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장된 소득이 일정 부분 존재하면 남은 자산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전략적 근거가 생긴다.

이 예시에서도 기본 시나리오에서 5.5% 순수익률을 6.5%로 소폭 상향했을 때 잔여 자산은 686만달러로 치솟는다. 즉, 보장 소득은 안전장치인 동시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 도구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보장된 안정적 재력을 갖춘 부자들도 소득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성이 보장되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실과 수익의 순서 따라 조기 소진 가능성 높아 보장소득 장치가 포트폴리오에 운용 여력 제공 공격적 운용 통한 추가 수익 구조 생성 가능해 자산 일부 재배치로 전체 포트폴리오 성적 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이유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FIA나 인컴라이더를 꺼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언급한 것처럼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걸 이미 수치로 입증했다. 아직도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다른 금융상품을 하급상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산은 주식시장에 두는 게 늘 더 낫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일부만 이동해도 포트폴리오가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보장소득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은 수수료가 비싸다고 한다. 이것도 틀린 지적이다.

일반적인 자산운용 수수료에 비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이런 수수료를 감안해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남길 수 있다.

이런 비판은 해당 상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부 수익 구조에 대해 잘못된 전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더 큰 수익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어떤 부자는 “소득은 필요하다

누구나 은퇴 이후에는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 소득이 없다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든다. 보장된 소득이 있다면 자산은 더 오래 버틸 뿐 아니라 남은 자산의 운용 여력도 훨씬 커진다.

수명은 길어지고,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 답이 바로 ‘보장된 평생 소득’이다.

‘보험 상품은 부족한 사람들의 선택지’라는 인식은 이제 버릴 필요가 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설계의 핵심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을 계약적으로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다.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금융 전략이다.

켄 최 아파트 자산관리 대표

주택융자 심사 기준 완화

패니매 최소 크레딧 폐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Fannie Mae)가 이달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최소 크레딧 스코어(620점) 요건을 폐지한다.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패니매의 이번 결정은 프레디맥(Freddie Mac)이 수년 전 도입한 유사 조치를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점수가 620점 미만인 경우 패니매 시스템

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예금, 부채 수준 등 종합 요인을 반영해 신용도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19점인 바이어는 그동안 대출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충분한 현금 보유액과 안정된 소득이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생긴다.

패니매의 내부 자동심사 시스템인 ‘데스크 언더라이터’(DU)는 앞으로 외

부 신용점수 대신 자체 신용위험 평가 모델을 사용한다. DU는 대출을 패니매에 판매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신용점수 없이도 최소 신용위험 기준을 설정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출기관이 승인한 모기지를 매입해 유통화(증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U는 차주의 예금액, 부채비율(DTI), 주택 유형, 대출 목적(구입·재융자·현금 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존에는 다우페이먼트가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기지보험(PMI) 가입을 위해 최소 620점의 중간 FICO 점수가 필요했으나, 오는 16일부터 대형 민간 모기지 보험사인 MGIC는 기준을 20점 낮춰 600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클립턴 싱글홈

\$1.5M

방5/화4.5/차고3, 1.05 에이커
새 지붕, 새 HVAC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화2.5/차고1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화2.2, 2 Assigned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함, 교통편리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700,000
방3, 화2.2, 차고2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VA 571.999.2755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인류 구원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마리아=공동구속’ 개념 폐기
“신앙의 진리에 혼란” 이유
교황 레오 14세 승인, 확정
‘마리아 신학’ 지지층은 반발

가톨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었던 ‘성모 마리아의 공동 구속(Redemption)’ 교리 논쟁에 대해 교황청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4일(현지시간) 교황 레오 14세의 재가를 받은 새로운 교령에서 “마리아를 ‘세상의 공동 구속자’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식 문헌을 발표했다. 새 교령 ‘신앙인의 어머니(Mater Populi Fidelis)’는 “올바른 의미를 계속 설명해야 할 만큼 혼란을 초래한다면 이 표현은 유익하지 않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속 사역을 가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칭호는 신앙의 조화로운 진리를 흐리게 하고 신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류를 구원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명시했다.

교령은 마리아의 구원 협력에 대한 신학 논의를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유일무이하다는 교회의 기본 교리를 재확인했다. 교황청은 “마리아는 인류 구원에 협력했으나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로 완성되었다”고 못 박았다. 이번 결정으로 공동 구속자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황청이 “인류를 구원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공식 문헌을 발표해 성모 마리아의 공동 구속이라는 교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교령은 교황 레오 14세의 승인을 받아 지난 10월 7일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서명했다.

가톨릭 신앙에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속죄한 구속자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의 구속 사역에 공동으로 참여했는가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여러 세기 이어졌다. 찬성론자들은 이를 교리로 선포하자고 주장했으나 반대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약화하고 다른 기독교 교단과의 일치 노력에도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공동 구속자 개념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2019

년에는 “성모님은 결코 아들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며 “공동 구속자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발상”이라고까지 말했다.

베네딕토 16세 역시 이 칭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때 이를 지지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앙교리부의 우려 표명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을 중단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서문에서 “최근 수십 년간 신앙교리부가 받은 질의에 답하기 위해 이 문헌을 마련했다”며 “마리아 신심의 표현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추기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일부 마리아 신심 운동과 출판물, 신앙집단은

대중들의 신심에 있는 본질과 달라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헌은 마리아의 위치를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재자이자 구속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심이 교회의 정체성에 충실되게끔 에큐메니컬(교회 일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는 칭호에 대해서도 교령은 “올바른 신학적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하느님의 어머니(Mater Dei)’나 ‘신앙인의 어머니’와 같은 모성적 칭호 사용을 권장했다. 문헌은 “마리아는 구속과 은총의 주인공이신 이를 세상에 낳

은 어머니로서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마음이 칼에 찔리는 아픔을 견뎌냈다”고 서술했다. 이어 “성육신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마리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특별하고 선행적인 방식으로 구원받았다”며 “마리아의 위대함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신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역할과 병행되는 능동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마리아 고유의 아름다움을 흐린다”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 알렸을 때,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했다. 교황청은 “이 믿음과 순종의 대답이 인류 구원의 시작이었다”며 “마리아는 신앙의 모범으로 존경받아야 하지만 구속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이 문헌은 일부에게 불쾌할 수 있지만, 교회의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대다수 신자들의 신심과 사랑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기경은 “신자들이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과정이나 축소 없이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온라인상에서 공동 구속자 칭호를 옹호하는 격렬한 논쟁이 “신앙교리부가 피하려는 극단주의의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

안유희 객원기자

세상의 근원은 물질에서 시작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종교가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포이어바흐 유물론 더 신뢰

아무리 유능한 천재라도 타인의 도움 없이 성과를 낼 수는 없다. 아무리 위대한 정복자라고 해도 혼자 힘으로 이룬 대업이 아니다. 헤겔은 이것을 세계정신 또는 세계영혼이라고 했다.

가령,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주의를 ‘세계정신의 자기실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서 세계사는 이미 신의 존재가 만들어 놓은 시

나리오라는 얘기다. 예전에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을 인용한 듯, 너무도 형이상학적인 말이다. 헤겔의 이러한 사상은 칸트가 형성한 관념론을 뛰어넘는 폭넓은 사상이다. 이러한 헤겔 정신을 마르크스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겔의 변증법 추종자인 그가 세계정신 같은 관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마르크스는 대신 종교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더 신뢰했다. 그로 인해 신들의 전쟁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이어바흐도 앵겔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을 알면, 인간의 본질도 알 수 있다

는 형이상학적인 논조 얘기를 해서 공산주의자들을 실망하게 만든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결합하여 유물론적 변증법을 완성한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체제 이론의 바탕이 되었다. 유물론적 변증법이란, 세상의 근원은 물질이라는 것로부터 시작한다. 즉, 인간이라는 물질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진화한 결과라는 것이다. 변증법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로, 대립물들은 상호투쟁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진화된 개체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점진적인 양적 변화에서 급작스러운 질적 변화를 일

으킨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정 이 또 다른 부정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반합(正反合)’의 원리로 세상은 정반합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헤겔이 주장한 중요한 사상이다.

찰스 다윈은 모든 인간과 동물들은 투쟁을 통하여 우월한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우성 유전자는 또 다른 유전자와 투쟁하여 더 좋은 유전자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연선택 또는 적자생존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이론은 기원전 6세기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세상은 늘 변화하므로 고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투쟁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사상을 헤겔, 니체, 다윈이 따른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에 파르메니데스는 진리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불변에 불생 불멸(不生不

滅)한다고 했다. 이 사상을 플라톤과 칸트 등이 따랐다. 마르크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따른 셈이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힘을 보탠 것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1859년)’이었다. 마르크스는 당시 다윈에게 찬사를 보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편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 신흥 부르주아적 계급인 부유한 상공인들은 투쟁을 통하여 봉건귀족을 몰아내고, 막대한 자본을 쥔채였다. 그러나 그들도 그 자본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을 착취하자, 이들을 해방해 주려는 의도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시작됐다. 즉, 소수의 부르주아에 맞선 다수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쫓기하면, 질적 변화를 유발하여 노동자 천국인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헤겔의 변증법을 이용한 것이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쿼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부동산 가이드



렉스 유
New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

상업용 임대 기본 유형과 구조

수익에 따른 퍼센티지 리스, 초기에 유리
임대는 ‘사업 파트너’ 처럼 구체적인 계약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주거용 임대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구조, 비용 분담, 시설 개선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임대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로스 리스(Gross Lease), 넷 리스(Net Lease), 그리고 퍼센티지 리스(Percentage Lease)입니다.

먼저 그로스 리스(Gross Lease)는 임차인이 매달 정해진 고정 월세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안에 세금, 보험료, 유지비 등의 건물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예산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예기치 못한 건물 비용이 생기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넷 리스(Net Lease)는 기본 임대료 외에 세금, 보험료, 관리비 등을 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트리플 넷(Triple Net, NNN) 리스는 임차인이 모든 운영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세는 낮지만 실제 총비용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퍼센티지 리스(Percentage Lease)는 쇼핑몰, 음식점 등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기본 임대료 외에 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추가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장사가 잘될수록 임대료도 함께

오르지만, 초기에는 부담이 적습니다.

이 외에도 그라운드 리스(Ground Lease)라는 특수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장기(보통 30년 이상) 임대해 임차인이 직접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땅과 건물 모두 임대인에게 귀속되므로, 초기 사업 계획을 탄탄히 세워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시설 개선(Tenant Improvements)입니다. 임대 공간을 임차인의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하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일정 금액의 개선비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직접 공사하는 Improvement Allowance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직접 시공을 마친 상태로 공간을 제공하는 Turn-Key Project 방식입니다.

이때 설치된 시설이 나중에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지, 특히 Trade Fixture로 구분되는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는 단순한 공간 임대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십에 가까운 계약 구조입니다.

임대료 방식, 운영비 분담, 시설 개선 조건 등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협의하는 것이 향후 분쟁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해리 정
한비다 부동산 대표

리모델링과 ADU의 부상

소유주 입장에선 또다른 자산 창출
인허가, 세금 혜택 등 꼼꼼히 살펴야

미국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지만 변화를 겪고 있다. 집값과 금리가 높은 지금 더 이상 “새 집을 살까?”보다 “지금 집을 어떻게 더 잘 쓸까?”를 고민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리모델링과 ADU(Accessory Dwelling Unit, 보조주택단위)가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1. 금리와 공급난과 리모델링 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대로 오르자 매매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고 있다. Redfin 통계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향후 1년 내 집을 고칠 계획이 있다.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홈 오피스나 게스트 룸 등 새로운 기능을 담은 공간 재구성이 중심이다.

경제적 이유도 뚜렷하다. 기존 모기지가 3%대인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 금리가 두 배로 쏠린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며 홈에쿼티 대출(Home Equity Loan)을 활용해 리모델링한다. “지금 사는 집을 더 나은 집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된 것이다.

2. ADU, 공간을 자산으로

리모델링과 함께 급성장 중인 시장이 ADU다. 단독주택 부지 안에 별도의 소형 주거공간을 짓는 형태로, 게스트하우스나 임대용 별채로 활용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ADU 규제를 완화했고, 2024년 기준 연간 3만 건 이상의 허가가 발급됐다.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이다. 자녀가 독립한 뒤 남은 마당에 ADU를 지어 임대하거나, 노부모의 별도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세대 간 독립과 유대가 가능하다. 임

대 수입은 모기지 부담을 덜어주고, 은퇴 세대에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든다.

3. 지방정부의 지원과 신산업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등 일부 주 정부는 ADU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표준 설계도 무료 제공, 세금 감면, 최대 4만 달러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립식 ADU(Prefab ADU)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3~4개월이면 완공되는 턴키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대중적인 주택 확장 방식이 되었다. 리모델링 산업 역시 커지고 있다. 소규모 시공업체, 모듈형 하우스 회사, 인테리어 전문 스타트업이 새로운 주택 개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4. 바뀌는 주거문화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이사할까, 고쳐 쓸까?”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다.

젊은 세대는 집 일부를 임대하거나 소형 ADU를 짓고, 중 장년층은 부모-자녀 세대를 위한 다세대형 구조로 리모델링 한다. 미국 가정의 6가구 중 1가구가 세대가 함께 사는 형태다. 집은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자산이 되었다.

5. 결론 - 평수가 아닌 활용력

리모델링과 ADU의 확산은 유행이 아니다. 그 속에는 금리, 인구, 세대문화, 일자리 변화가 녹아 있다. 더 큰 집보다 집을 더 잘 쓰는 방법을 찾고 있다. 부동산의 핵심은 “새로움”이 아니라 “활용력”이다. 사는 집을 고쳐 쓰는 시대, 그 변화는 시작되었다.

갈수록 복잡한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의 배분과 손실 위험을 다시 계산한다. 글로벌 무역 구조의 변화, 고조된 시장 변동성, 경기 침체 우려 등 다양한 리스크가 전통적인 주식-채권 중심의 자산 다각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 자산은 다시금 안정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비상장 인프라 지분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12.5%에 달했고, 변동성은 2.9%에 그쳤다.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았다. 인프라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사회의 필수 기능을 담당하고, 대체가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프라의 안정성은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건설과 운영 과정이 복잡하고 자본 투입이 막대

루바 니콜리나의 마켓 나우

인프라라고 다 같은 인프라는 아니다



해 진입이 어렵다.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띠어 경기 사이클 전반에 걸쳐 일정한 수요를 유지한다. 덕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예측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낸다. 또한 많은 인프라 자산은 요금 체계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을 지닌다. 항해 중인 배에 비유하자면, 인프라는 포트폴리오를 물 위에 띄우는 부력이

자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추’다.

그러나 인프라를 단일 자산군으로 보는 접근은 위험하다. 그 의미와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인프라가 유료도로, 공항, 발전소였다면, 오늘날

에는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네트워크, 전력 저장 시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각 자산의 수익 구조와 위험 요인은 다르다. 수처리 시설은 경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데이터센터는 전력비용과 수요 사이클에 따라 수익이 요동칠 수 있다.

같은 유형이라도 지역, 규제, 투자 구조에 따라 수익률은 크게 달라진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산과 개발 단계의 자산을 나누는 접근이 유용하다. 전자는 효율 개선을 통한 안정적 수익을, 후자는 건설 위험을 감수한 높은 수익을 노린다.

또한 ‘테마형 투자’ 접근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인프라 시장을 재편하는 세 가지 흐름은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그리고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청정 발전 설비와 송전망 투자를, 인공지능의 확산은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 수요를, 리쇼어링은 생산시설과 물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IFM인베스터스 최고전략책임자

REALTY11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후원 주택 리스형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나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바이어 희소식 ~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상담 해드립니다.

임대 주택 관리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펙션, 래드 인스펙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RENT

싱글 홈, 스프링필드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화1 \$1600

\$1,600

급매

급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방2+ 화 1+ 아담한 뒷마당
채털리 as ls 급매

\$300,000 (임대 \$1,8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LA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Jayne Kamin-Oncea-Imagn Images·로이테]

‘킹’ 제임스, 복귀 시동

이번주 연습 훈련에 참여
NBA 최다시즌 기록 앞뒤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LA 레이커스의 ‘킹’ 르브론 제임스(40)가 구단 산하 팀인 사우스 베이 훈련에 참여해 복귀 준비에 나선다.

10일 ESPN에 따르면 제임스는 이번 주 중 NBA의 하부 리그 G리그 팀인 사우스 베이와 함께 훈련할 예정이다. 올해로 NBA에서 23번째 시즌을 맞

이하는 제임스는 오른쪽 좌골신경통으로 시즌 초반 결장하고 재활에 매진해왔다.

좌골신경통은 허리에서 시작해 발까지 이어지는 좌골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될 때 발생하는 신경통의 일종이다. 제임스 없이 시즌을 시작한 레이커스는 이날 경기를 포함해 최근 7경기에서 6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즌 8승 3패로 서부 콘퍼런스 4위에 올라 있다. 레이커스의 다음 홈 경기는 오는 18일 유타 재즈와 대결이다.

제임스가 이 경기에 출전하면 은퇴한 빈스 카터(22시즌)를 넘어서고 NBA 최다 시즌 출전 기록 단독 1위에 오르게 된다.

12월 31일 만 41세가 되는 제임스는 200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지명돼 NBA에 데뷔한 뒤 20년 넘게 슈퍼스타로 활약해왔다.

지난 시즌까지 통산 4만2184점을 쌓아 NBA 정규리그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 중이다.

‘건강한 김도영’ 첫 경기는 WBC?

작년 KIA 우승 주역, 올핸 시즌아웃
근육 회복에 집중, 실전 복귀 준비
“육이라도 좋으니 많은 관심 부탁”

“걱정이나 위로가 아닌, 육이라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간판타자 김도영(22)이 긴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지난 11일 늦은 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올 시즌은 내게 짧고도 길었다. 부상으로 몸보다도 마음이 정말 힘들었지만,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비시즌 동안 영리하게 몸을 만들겠다. 올해 팀 승리에 기여하지 못한 만큼, 내년 그리

고 앞으로 더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도영은 지난해 KIA 통합우승(정규시즌+한국시리즈)의 주역이었다. 역대 최연소 30홈런-30도루를 달성하는 등 공·수·주에서 맹활약해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그러나 올해는 햄스트링 문제로 한 시즌을 거의 날렸다. 폭발적인 관심 속에 시즌을 시작했지만, 개막전에서 주루하다 왼쪽 햄스트링을 다쳤다. 한 달가량 재활을 거쳐 1군에 복귀했는데, 5월 말 도루를 하다 반대쪽 햄스트링을

다쳐 다시 전열을 이탈했다.

두 번째 부상은 더 심했고, 팬들 시선도 곱지 않았다. 당시 이범호 KIA 감독은 “김도영이 도루 한두 개를 하는 것보다 다치지 않는 게 팀에 더 도움이 된다”며 만류했는데, 공교롭게 도그 발언 직후 다쳤다. 이후 김도영은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두문불출하며 착잡한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 8월 5일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배영은 기자



승부 조작 MLB…“베팅 한도 제한”

클라세·오티스, 불법 도박

현역 선수들의 스포츠 도박 공모 행위로 발각 뒤집힌 메이저리그(MLB)가 투구별 베팅 한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MLB 사무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구별 베팅 최고액을 200달러로 제한하고, 이를 복합 베팅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는 (미국 스포츠 도박 시장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공인 베팅 업체들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MLB는 최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마무리 투수 엠마누엘 클라세(27)와 선발 투수 루이스 오티스(26)의 불법 스포츠 도박 공모와 승부 조작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정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두 선수는 도박사들에게 돈을 받고 경기 중 특정 투구의 구속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지난 7월 스포츠 도박 혐의로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뒤 최근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오티스는 9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고, 10일 보스턴 연방 법원에 출두해 5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기로 하고 풀려났다. 그는 법원 출두 과정에서 현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연방법원 출석하는 루이스 오티스. [로이테]

난해까지 3년 연속 올스타에 뽑혔고, 올 시즌 전력에서 빠지기 전까지 5승 3패, 24세이브, 평균자책점 3.23으로 활약했다. 오티스는 지난해 피츠버그 파이어츠에서 7승 6패, 평균자책점 3.32를 기록한 뒤 올해 클리블랜드로 이적해 4승 9패 평균자책점 4.36의 성적을 올렸다.

미국에선 스포츠도박이 합법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8년 스포츠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뒤 스포츠도박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MLB는 리그 구성원들의 베팅 행위에 관해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MLB 규약 21조에 따르면, 선수, 심판, 구단 및 MLB 관계자가 소속 팀 경기에 돈을 걸면 영구 실격된다. 다른 팀 경기에 베팅해도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는다.

‘한 경기 4홈런’ 커츠, 만장일치 신인상

NL은 브레이브스 볼드윈
김혜성·사사키 득표 실패

신인 선수 최초로 한 경기에서 4개 홈런을 터뜨린 ‘괴물 루키’ 닉 커츠(22·애슬레틱스·사진)가 만장일치로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AL) 신인왕을 차지했다. 커츠는 10일 공개된 미국야구기자협회(BBWA) 2025 AL 부문 신인왕 투표에서 1위표 30장을 싹쓸이했다.

커츠는 올 시즌 애슬레틱스의 주전 1루수를 맡아 117경기에서 타율 0.290, 36홈런, 86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02로 맹활약했다. 7월 2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방문 경기에선 홈런 4개를 포함해 6타수 6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MLB 역사상 신인 선수가 한 경기에서 4개 홈런을 친 건 처음이었다.

내셔널리그(NL) 신인왕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포수 드레이크 볼드윈(24)이 차지했다.

올해 MLB에 진출한 김혜성과 일본 출신 마무리 투수 사사키 로키(이상 LA 다저스)는 득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저렴한 비용

2.편리한 풀서비스

3.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intelisystems

more advertising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come down with a cold (or the flu); 감기(독감)에 걸리려나봐

(Matt is talking to his co-worker Don ~)

(맷이 직장 동료 단과 이야기를 하며 ~)

Matt: Hi Don. What's the matter? You don't look so good.

맷: 단. 무슨 일 있어? 별로 안 좋아 보여.

Don: I'm coming down with a cold.

단: 감기에 걸리려나봐.

Matt: You should drink plenty of liquids.

맷: 물 같은 걸 많이 마셔야 돼.

Don: I am a lot of water tea and orange juice.

단: 그러고 있어. 물하고 차 오렌지 주스 많이 마시고 있어.

Matt: Do you have a fever?

맷: 열 있어?

Don: No I don't.

단: 아니 없어.

Matt: That's good.

맷: 그건 잘 됐다.

Don: I might take off early today.

단: 오늘은 조퇴할까 싶어.

Matt: That's a good idea.

맷: 그거 좋은 생각이야.

Don: I'm going to bed early tonight.

단: 오늘 밤엔 일찍 자려고.

기억할만한 표현

▶What's the matter (with someone or something)?: 뭐 잘못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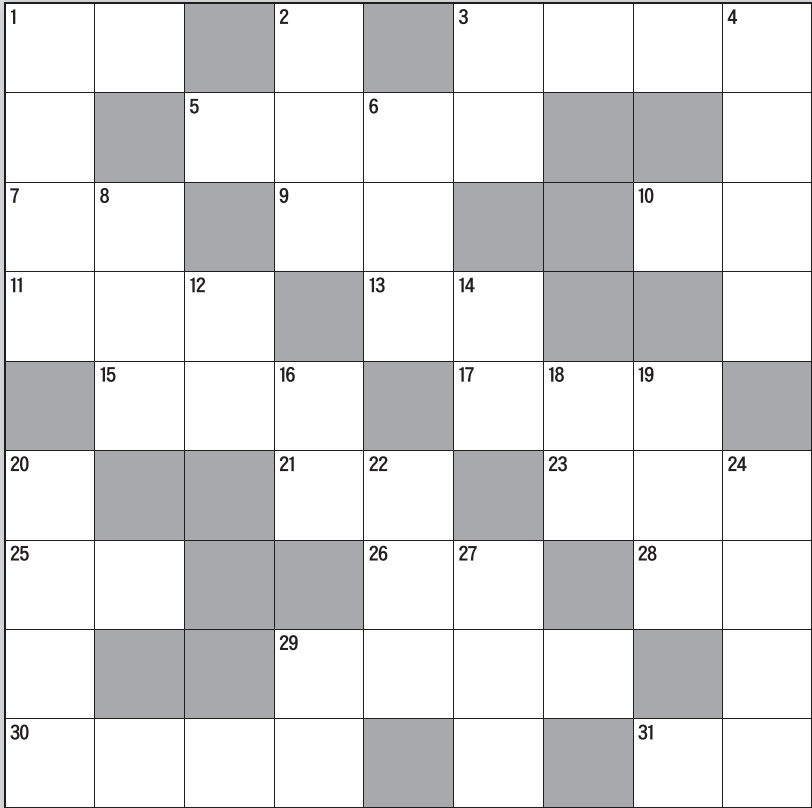
“Why are you limping? What's the matter with your leg?” (왜 발을 절어? 다리가 잘못됐어?)

▶ plenty of (something): 많은

“We have plenty of hamburgers for the barbecue.” (바비큐용 햄버거는 많이 있어.)

▶ take off: 이륙하다. 떠나다.

날말퀴즈



가로열쇠

(1)오빠와 누이. 또는 누나와 남동생 (3)바람 앞의 등불.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 □전□□ (5)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음. 아주 놀랍고 획기적인 일. ~의 대사건 (7)늙은 어머니 (9)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10)등잔, 초에서 불을 붙이는 실오라기 부분 (11)심성. ~가 사납다 (13)집 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흘러 나가도록 만든 시설 (15)날치기, 소매치기 따위의 행동이 날랜 줌도둑이나 그 무리 (17)무로 담근 일본식 찐지 (21)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씌 (23)하나의 술잔으로 같이 마시는 술.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마시는 술 (25)잡은 그대로의 성한 물고기. ~이 참 상상하기도 하다 (26)쇠고기를 얇게 저미어 말린 포 (28)조선 시대에, 통행금지를 알리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치던 종 (29)벗과 벗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 오류의 하나 (30)옛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 와신상담은 중국 오나라와 월나라 왕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다. □사□□□ (31)즐거 재미있게 읽음. 지금 ~하시는 신문은 중앙일보죠

세로열쇠

(1)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모든 사람 (2)굵고 거세게 좌좌 내리는 비 (3)바람처럼 떠도는 소문 (4)그림 속의 떡.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음 (6)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 (8)몹으로 돌아오는 물건. 형수는 자기 ~에서 감을 하나 꺼내 주셨다 (12)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십년 ~ (14)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로 보내는 비단 (16)물건을 넣어서 등에 지조 (18)농악대에서 상쇠의 목말을 타고 춤추고 재주 부리던 아이 (19)상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 책임자 (20)사람이 태어났음을 관청에 알리는 일 (22)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살이 찌도록 기르는 소 (24)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글을 읽음.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곳곳이 공부함 (27)젓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동물. 인간을 비롯해 개, 고양이, 호랑이, 사자 등이 ~에 속한다 (29)임금이 세상을 떠남. 승하. 임금의 ~에 대하여, 온 국민은 흰 갓과 흰옷과 흰 신으로 조의를 나타내었다

스도쿠

3	2	6	9	1	8		7	4
9	7	5		4				6
					6	9		
	1	8	6				3	
	6	3	8	7	5	4		1
4	5	9	2			8		
	3		4		9			
	9				3		1	2
			1		7	3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7	8	9	1	2	3	4	5
2	1	9	8	5	7	6	9	
8	5	9	6	2	7	9	8	1
9	8	1	2	7	8	5	9	2
1	6	7	5	9	8	8	9	2
5	8	2	7	6	9	8	1	9
8	2	6	9	5	9	1	7	8
9	8	1	2	7	8	5	9	6
7	9	5	8	1	6	9	2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유파이낸셜그룹**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유파이낸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선물 1 “내년도 메디케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9월15일부터 30일 사이에 ANOC편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가지고 저희 회사로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내년도 혜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유파이낸셜이 정성으로 도와드립니다



선물 2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은퇴는 다가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이 없거나 충분히 성장하지 않죠?
이번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보세요.
집안과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 이제는 살아서 성장하는 자산으로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유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선물 3 “혹시 모를 사고, 준비되셨나요?”

미국에서 열심히만 살면 될줄 알았지만 현명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노력해서 모은 것을 한 번에 잃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 누가 대신 병원비를 내줄까요?
장기간호가 필요할때 누가 나를 간호해줄까요?
지금 준비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파이낸셜이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파이낸셜 그룹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11월

구인

광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런칭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배넛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수강생 모집

루미나 에스테틱 스튜디오 (애난데일 본사)에서
슈가링 확신패우실 분을 모집합니다.

- 자격증 소지 강사가 직접 지도
- 한달 완성
- 확실표제품도 판매
-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슈가링
확실패우실

240-205-4949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음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플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몽고메리물 시계 및 주얼리 샵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 (게이더스버그 소
재)에서 주일 1부 예배를 섬겨주실 반주자 한
분을 모십니다.
-예배시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연습시
간 오전 7시 20분 및 예배)*일년에 두차례 있
는 특별 새벽기도회때 이틀간 반주하셔야함
-지원자격: 세례교인으로 교회반주에 은사
와 사랑감이 있는분 (성가 및 복음성가)
-제출서류: 이력서 및 신앙고백이 담긴 간단
한 자기 소개서
-제출처: BPC.Music.Dept@gmail.com
-제출기한: 청빙시까지
-사례비: 교회 내규에 따름 (추후통보, 후시
공급하신분들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문의사항: 이민형 장로: 216-870-9234
이메일: leeminhyung7896@gmail.com
김요한 목사: 301-215-0065
이메일: shalom198484@gmail.com
-교회주소: 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TEL: 301-670-1200
<http://bethanyusa.org/>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 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 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301-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파트: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
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
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서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소지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파트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 약간명, 리셉서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이미용/기타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2013년형 Honda CRV SUV 97,500마일
6,700불, 다크 그레이, 상태 좋음
703-678-5421 (문자요망)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입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크 컨디션
703-909-9377

슈가링 왁싱 배우실분 모집합니다. (애난데
일 루미나 에스텍 스튜디오)
자격증 소지 강사가 직접 지도, 한달 완성,
왁싱 제품 판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240-205-4949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티 리퀴 스토어 라라리스탁하실분
2-9pm 일하실분 구함 (금,토 포함)
301-336-2500

메릴랜드 라이선스 소지하신 마사지セラ피
스트 구합니다.
240-232-5989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 - 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낯선희,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싱글/타운 방 렌트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싱글
하우스 워크아웃 지하, 방2, 욕실, 취사기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워터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싱글홈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3.5, 10월1일부터 입주 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입구, 메릴랜
드 대학가까운 싱글홈 이층방 렌트
301-385-3535 (문자 요망)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사업체 매매

베데스타 델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확실한 순익 보장 델리 매매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 건물, 주 5일 (6am - 3pm)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 (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척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리셉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
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 모집 RN, LPN (풀타임, 파트타임)
채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력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력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
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력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를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서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파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바스토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센터빌, 챌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서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챌들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서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쿼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서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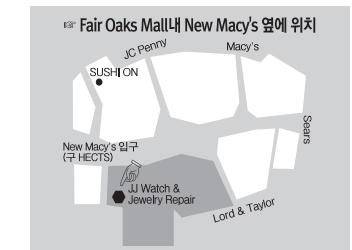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중앙일보

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허바찌 셰프 구합니다.
703-258-4356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703-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폴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식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폴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 모집니다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리 샴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트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3:30pm (월, 화, 목, 금)
4pm-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 우대, DC 전철역 옆
240-644-4190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No. 1 콜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센터빌 H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 리모델링, 개/고양이가
능, 12월 11일 입주, 단기 렌트도 가능
571-345-6667

GMU 대학 체육관 뒤 조용한 싱글홈 전체 렌
트합니다. (웃슨 하이 학교)
방4, 화2.5, 차고2, 교통 편리 (조지메이슨 1
마일, 패어팩스 H마트 1.3마일)
703-350-2278

스프링 필드 싱글홈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가능 \$3,600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 렌트
\$2,400, 방3, 화장실 3.5, 업그레이드 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 (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 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2,900
로빈슨 하이스쿨 근처 1,496sqft 전체 렌트
방3, 화3.5, 11/5일부터 입주 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 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텍,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 마루, 차고2, 텍, 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 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 \$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편리한 로케이
션, 잘 관리된 집
2. 센터빌 타운홈 \$3,0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
이함, 큰 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 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703-919-0472

패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 다수, 콜린 파월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 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571-239-605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콘도 \$1,500
방1, 화장실1, 고급스런 나무 마루, 탁트인
넓은 콘도, 업데이트된 부엌, 계단없는 1층
나무가 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콘도 \$2,600
방2, 화장실1, 1,105 SF 넓은 콘도,
13층으로 탁트인 조망, 엘리베이터,
\$100,000 가량 수리하고 업데이트한 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델한 화장실, 새 페인
트,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 콘도 \$1,700
방1, 화장실1, 엔드 유닛 880 sf, 넓고 밝은
콘도, 세탁기, 건조기, 새 화장실, 나무 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 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571-239-6054

방 렌트

위치 좋은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깨끗하고 환
한 지하 전체 렌트 (방, 거실, 목욕탕, 간이 주
방) \$1,300
2층 넓은 안방, 목욕탕, 주방 \$1,200
주차 가능
문의 : 703-231-5572

첼트리 롯데 근처 싱글 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로튼 (애난데일에서 15분 거리) 조용한 주택
가 1층 같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
리티 포함, 출입분 별도, 2500 sqft

571-488-5860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
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
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 식당 1
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 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
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
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 편리, 주차 넉
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
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하우스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 방 렌
트 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자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 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텍,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 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문자요망)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첼트리 급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703-231-5572

애쉬번 타운 하우스 \$670,000
방4, 화3.5, 차고2, 최고 학군, rt267/7, 델
레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은
11/16/25 (SUN) 1-3pm 오픈 하우스
▶571-239-6054

우드 브릿지 타운홈 \$399,900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
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703-813-8949

메나사스 타운홈 \$445,000
방4, 화3 1/2, 엔드 유닛, 업데이트한 부엌과
화장실들, 3층 모두 나무 마루, 워크아웃 베
이스먼트, 새 주방 용구들, 새 HVAC, Granite
Countertop, 새 페인팅, 새 브라인드, 넓은 텍
과 펜스
▶703-813-8949

1. 엘리컷 시티 싱글홈 \$820,000
방4, 화2.5
2. 콜롬비아 타운홈 \$595,000
방3, 화2/2
▶301-318-4242/443-668-0453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410-417-7080

1. 메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중앙일보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중

앙

생

활

안

내

광

고

Classified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3.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 3, 화장실 2+2, 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5. 엘리컷시티 싱글홈 \$820,000
방 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순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9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 화2, Top Floor 앤드 유닛,
업데이트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 5, 화 5.5, 차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 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시스템,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571-239-6054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순 학군 싱글홈 \$1,900,000
2. 패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방 3, 화장실 3, 차고 2
3. 찬탈리새 빌더홈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670,000 방 3, 화장실 2.5
4. 패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 3, 화장실 3 \$1,000,000
5. 찬틀리 콘도 새 빌더홈 (2025년 완공 예정) \$530,000 방 2, 화장실 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 3, 화 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 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슴.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 2, 화 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 등 좋은 생활 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베데스타 델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확실한 순익 보장 델리 매매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는 건물, 주 5일 (6am - 3pm)
703-300-7207 (문자)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

링비 절감 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40-988-6868

델라삼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2013년형 혼다 CRVSUV 97,500마일
6,700불, 다크 그레이, 상태 좋음
703-678-5421 (문자요망)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703-909-9377

슈가링 왁싱 배우실분 모집합니다. (애난데일 루미나 에스테틱 스튜디오)
자격증 소지 강사가 직접 지도, 한달 완성,
왁싱 제품 판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240-205-4949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낯심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적게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싼 가격에 팝니다.
703-966-9072 (Mr.Kim)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텃밭 공유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인링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품, 골동품, 청동으로 된 언어공주, 자수정수 집품, 장가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울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팅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 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웅니 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 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 / 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 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스 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폴싱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 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미국 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착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 420-5492 / (703) 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① 위상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양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대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톱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저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씽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사장님의 꿈: 최신형 기계 교체 + 수수료 절약 + 최고 서비스

30주년
프로모션으로
리버티뱅크카드와
월드페이 가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학장: 사라 류 박사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u
30년 프로그래밍 경력
경영학 & 법학박사(J.S.D.)
(전자상거래 & 금융),
경영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수학
퍼시픽(J.S.D.) 법대원 졸업
부학장: 아브라함 이
(경영학 학사, 석사)

- ▶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지원)
-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card 전화주세요!

www.worldpay.com 424-332-3779
Info@meridianwish.com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 M 고객서비스, 연간 550억건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9월 햇산삼 세일

매달리치마 산삼
천종산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홀출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통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라클 터치 (213)675-6877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레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만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식당적극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전화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10LBS·1BOX \$15/lb 대추	\$150/10LBS·1BOX \$12/lb 대추	\$100/10LBS·1BOX \$7/lb 대추
--------------------------------	--------------------------------	-------------------------------

* \$12/lb 대추는 \$15/lb 대추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래스카 추가요금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신선농원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독점 Alexandria 콘도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Deck, 건조기 및 세탁기

\$365,000



독점 Dumfries 타운홈

2006년 새단지, 2 Car Garage,
방3, 화3 1/2,
As is Condition으로 싸게 나온 집,
업데이트 (에어컨, 히팅,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469,9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399,900



독점 Manassas 타운홈

방4, 화3 1/2, 엔드 유닛 타운 하우스, 업데이트 한
부엌과 화장실들, 3층 모두 나무마루,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새 주방 용구들, 새 HVAC, Granite
Countertop, 새 페인팅, 새 브라이트, 넓은 Deck와 Fence

\$445,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